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THE CARE ECONOMY IN KOREA: BEYOND COVID-19 AND TOWARDS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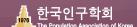
1-3 JUNE 2021 (WASHINGTON, D.C., USA) 2-4 JUNE 2021 (SEOUL, KOREA)

zoom













Sec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Inclus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6. 2. (수)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개회식	축사 정영애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
08:30 - 09:00	마크 말록-브라운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총재
세션 1 09:00 - 10:30	코로나19와 돌봄경제 기조발표 낸시 폴브레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회 엘리자베스 킹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CWE-GAM 공동 연구책임자 패널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 / 경제연구·지역협력국장 캐런 그라운 세계은행 글로벌 젠더 디렉터
세션 2 10:40 - 12:00	돌봄과 국가경제성장: 돌봄경제의 역할 사회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CWE-GAM 공동 연구책임자 발표 계봉오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 UC버클리대학교 펠로우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스 로프그렌 & 전 세계은행그룹 선임경제학자 마틴 시코비츠 아르헨티나 라 플라타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서주연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펠로우
세 션 3	글로벌 팬데믹 시대의 불평등 심화, 그리고 극복: 돌봄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
13:00 - 13:20	기조발표 조지프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세션 4 13:30 - 14:30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돌봄 위기 사회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발표 문현아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실장 전지원 전지원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토론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도남회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세션 5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영국의 돌봄경제 구축을 향한 노력과 전망
14:40 - 15:00	기조발표 다이앤 엘슨 영국 에섹스대학교 명예교수 / 전 여성예산단체 대표
세션 6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돌봄의 의미
15:10 - 15:30	기조발표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2-3 June (UTC-4) | 3 June (UTC+9) ENVISIONING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FOR THE POST-PANDEMIC FUTURE

OPENING 19:30-20:00 (UTC-4) 08:30-09:00 (UTC+9)	Special remarks	Jeongwoo Choi Maria Floro	CEO, POSCO Professor of Economics, American University / Co-Principal Investigator, Care Work and the Economy Project		
	CONNECTING C	ARE ECONOMY, GE	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FUTURE		
	Keynote speech	Anita Bhatia	Deputy Executive Director, UN Women / Former Director, Development Partner Relations, World Bank		
	Moderator	Ki-Soo Eun	Professor and Director of CTMS,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SSION 1 20:00–22:00 (UTC-4)	Keynote panel	Elissa Braunstein	Professor of Economics, Colorado State University		
09:00-11:00 (UTC+9)		Jiyeun Cha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Ito Peng	Professor of Sociology and Public Policy and Director of Centre for Global Social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Kavita Ramdas	Director, Women's Rights Program, Open Society Foundations		
		Sung-Sik Shin	Journalist, JoongAng Daily		
SESSION 2	IMAGINING THI	E TRANSFORMATIO	N TOWARDS A GENDER-EQUAL, CARING SOCIETY		
22:10–22:30 (UTC-4) 11:10-11:30 (UTC+9)	Keynote speech	Emiko Ochiai	Professor of Sociology and Director of Asian Research Center for Intimate & Public Spheres, Kyoto University		
	INFORMING THE CARE AGENDA IN SOUTH KOREA: VOICES FROM THE FIELD				
	Moderator	Hyuna Moon	Senior Research Fellow, CTMS		
	Roundtable	Hye-Jin Byeon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Kyoung Min Yi	Manager, Committee for Fair Labor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ulah Jeong	Manager, Women's Labor Team, Womenlink		
SESSION 3		Gi-Hyun Jo	Former Co-Chairman, Youth Inequality Council / Author of "The Narrative of a Young Carer. Becoming a Father of My Father"		
23:30–01:40 (UTC-4) 12:30-14:40 (UTC+9)		Young Sug Heo	Representativ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Special clip	Mi-Jung Kang & Jeong-Duck Kim	Activist, Political Mamas Activist, Political Mamas		
		Joo-Sung Kang	Co-Founder and Activist, Caregiver Citizens' Solidarity / Former President, Health Right Network		
		Chul-Soo Kim	President, Aesim Association of Care Providers		
		Hyun Lim Lee	First Chairperson, National Childcare Workers' Union		
		Ji Hyeon Jeon	Secretary-General, National Union of Long-Term Care Workers		
CLOSING	Closing remarks	Ruth Levine	CEO and Partner, IDinsight / Former Program Director of Global Development and Population,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01:50–02:30 (UTC-4) 14:50-15:30 (UTC+9)		Ito Peng	Professor of Sociology and Public Policy and Director of Centre for Global Social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Ki-Soo Eun	Professor and Director of CTMS,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6. 4. (금) 신진연구자 특별 심포지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과 돌봄 사회			
	사회	전지원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세션 1 09:00 - 11:00	발표	주익현 이은정 전소현 김은지	광운대학교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패널	마리아 플로로 이토 펭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CWE-GAM 공동 연구책임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 글로벌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BUILDING A CARE ECONOMY: FROM COVID-19 RESPONSE TO RECOVERY

개회식

축사

정영애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 마크 말록-브라운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총재

OPENING

Welcome remarks

Chung Young-Ai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

Mark Malloch-Brown President, Open Society Foundations

축사 | Welcome Remarks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Chung Young-Ai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입니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처럼 시의적절하고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여년전 부터 이미 'Who Pays for the kids?' 라는 책을 비롯하여 비시장 노동(non-market work) 돌봄 경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오신 '낸시 폴브레' 교수님과 이번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신 모든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가족, 학교, 요양시설, 보건시설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봄 노동 및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서비스 중심 돌봄 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분야 종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업무가 과중되거나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으로 인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코로나19로 더욱 늘어난 돌봄 부담이 주로 여성들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증가 추세이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20년에 소폭 감소하였는데,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증가한 여성 경제활동인구 중 72.1%가 가사·육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가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왔습니다. 또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재가서비스 및 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했으며, 가족 돌봄 지원과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시간과 이용료 지원 비율을 늘렸으며,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전국으로 확대해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돌봄 상황의 개선을 바탕으로 여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장관급 원탁회의 등에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돌봄 위기와 대응 노력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회적으로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성평등한 돌봄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국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UN Women과 함께 금년 중에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 증진을 위한 연구 · 개발, 교육 · 훈련, 파트너십 구축 등을 수행할 국제기구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의 돌봄 부담 등 성차별이 심화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이 기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돌봄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오늘 논의되는 의제만 살펴보더라도 ▲코로나19와 돌봄경제, ▲돌봄과 국가경제성장에 있어서의 돌봄경제의 역할, ▲돌봄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돌봄 위기 등하나하나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이슈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학계,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에서 오신 전문가 분들이 이에 대해 각자의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의미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 논의결과가 사회적 담론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정부 정책에도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BUILDING A CARE ECONOMY: FROM COVID-19 RESPONSE TO RECOVERY

세션 1 코로나19와 돌봄경제

기조발표

낸시 폴브레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회

엘리자베스 킹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CWE-GAM 공동 연구책임자

패널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 / 경제연구·지역협력국장

캐런 그라운 세계은행 글로벌 젠더 디렉터

SESSION 1 REFLECTING ON THE COVID-19 RESPONSE: THE SIGNIFICANCE OF CARE AND GENDER EQUALITY

Keynote speech

Nancy Folbre Professor Emerita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Former 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Moderator

Elizabeth M. King Non-Resident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

Co-Principal Investigator, Care Work and the Economy Project

Keynote panel

Caren Grown Global Director for Gender, World Bank

Young-Ock Kim Emeritus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Yasuyuki Sawada Chief Economist and Director General, Economic Research and Regional

Cooperation Department, Asian Development Bank

Care Economy in Korea:

Beyond Covid-19 and Towards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Opening Plenary June 2, 2021

Presentation by Nancy Folbr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nancy.folbre@gmail.com

https://blogs.umass.edu/folbre/



Bloomberg "Babies Wanted". Lee Jin-man/AP



Illustrator: Dani Choi for Bloomberg Mark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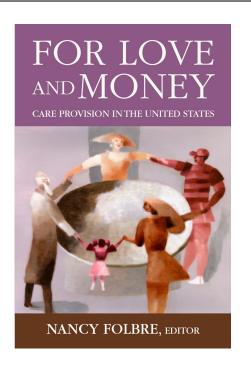
"South Korea Crosses a Population Rubicon in Warning to the World" Bloomberg Markets May 25, 2021

Half the global population lives in countries with below-replacement fertility.

The resulting stresses and strains—along with the Covid pandemic—are leading us to a new understanding of economic development.

What IS the Care Economy?

- Or, the "care sector"?
- Produces, develops, and maintains human capabilities
- Includes both paid work (childcare, elder care, health care, education, social services)
- AND the unpaid work provided by family and community members.



Distinctive Features of Care Provision



- Motivated by obligation, responsibility, affection, altruism, as well as economic self-interest.
- More about transfers to dependents than voluntary exchange between adults.
- Difficult to individually "capture" value-added.
- Positive spillovers—many people benefit.
- Seldom efficiently produced by capitalist enterprises

Global Changes in the Car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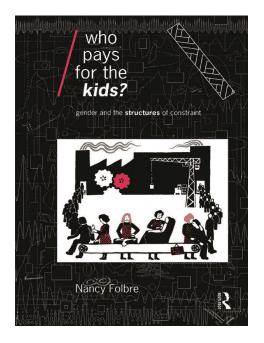


- 20th century--rapid population growth due to high fertility combined with mortality decline.
- 21st century--rapid fertility decline to belowreplacement-particularly as result of dramatic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as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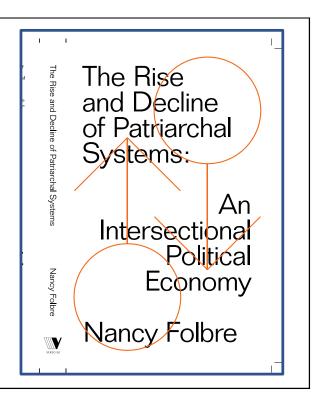
- Neglected and misunderstood by conventional economic theory.
- Interaction between patriarchal and capitalist institutions, mediated by both global trends and national cultures.





- Ancient history—high mortality once made high fertility necessary for economic and military success.
- Patriarchal institutions forced women to specialize in care provision, ensuring a cheap supply of family labor and rewarding high fertility.
- Capitalist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change reduced the advantages of high fertility, and destabilized many of the patriarchal institutions that limited women's choices

- Institutional change has led to new forms of distributional conflict over the "costs of social reproduction."
- This conflict is shaping the policies of the "welfare state," which redistributes more money between generations than between different classes.
- The benefits of raising children have been "socialized" by taxing the working age population to support the health and retirement of the elderly.



Now, states (especially Korea)
have begun
to socialize more of the costs
of children, providing greater
public subsidies.

However, they have underestimated the actual costs and women's willingness to voluntarily continue to pay them.

Specialization in care provision will always be disadvantageous because it is difficult to individually capture any economic benefits.

The "product" of care (human capabilities) is NOT FOR SALE.

Responsibilities for care provision must be equitably shared through achievement of a better balance between family work and paid work.

What Do We Do Now?

- Below-replacement fertility will not have terrible consequences—we can adapt.
- As global and national populations decline, however, we must learn how to stabilize them in the future.
- This will require a fundamental re-orientation of priorities away from emphasis on the growth of Gross Domestic Product.
- It will require recognition of the intrinsic and extrinsic value of producing, developing, and maintaining human capabilities in an ecologically sustainable process of economic growth.

Among the Many Lessons of Covid-19

- Economic growth itself does not deliver health and well-being.
- Spending on children (and parents) is not a "bribe" or a "waste." It is the most important investment we can make.
- Spending on a large elderly population is not a "burden" or a source of "unproductive" spending. It too is an investment—an investment in our own hopes for longevity and reduced "depreciation" of human capital.

Thank You, Korea

The rapidity of your demographic change is forcing you to play a leadership role in a global process of adaptation to a new economic regime.

I believe the research being presented at this conference will contribute to your success.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BUILDING A CARE ECONOMY: FROM COVID-19 RESPONSE TO RECOVERY

세션 2 돌봄과 국가경제성장: 돌봄경제의 역할

사회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CWE-GAM 공동 연구책임자

발표

계봉오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레첸 도하워 미국 UC버클리대학교 펠로우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스 로프그렌 & 전 세계은행그룹 선임경제학자

마틴 시코비츠 아르헨티나 라 플라타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토론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서주연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펠로우

SESSION 2 INVESTING IN CARE ECONOMY TO NURTURE A CARING SOCIETY

Moderator

Maria Floro Professor of Economics, American University /

Co-Principal Investigator, Care Work and the Economy Project

Presentation

Bongoh Kye & Professor of Sociology, Kookmin University

Gretchen Donehower Academic Specialist and Research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ans Lofgren & Former Senior Economist, World Bank

Martín Cicowiez Professor of Economics, National University of La Plata

Jayoung Yoon Professor of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nel

Sang-Ho Nam Emeritus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Jooyeoun Suh Faculty Fellow, American Universit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Evolving Demographic Change and Care Support in Korea and the US

Gretchen Donehower, Demographe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ongoh Kye, Professor of Sociology, Kookmin University

Learn more about Care Work and the Economy: www.careworkeconomy.org

Follow us on Twitter and Facebook: @careworkeconomy

Contact presenter: gretchen@demog.berkeley.edu, bkye@kookmin.ac.kr

1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Why Care Economy?

- 1. Care provision as supplementary?
 - Strong gender segregation at home and in the labor markets
 - Patriarchal-capitalist development (Chong 2008)
 - Militarized modernity (Moon 2005)
 - Implications of COVID 19?
- 2. Population aging
 - · Rapidly changing care demand
 - Reduction in child care & Increase in elderly care

Donehower & Kye

2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Care Support Ratios

A simple method to evaluate how demographic change may impact care economies.

- 1. Estimate age profiles of a particular type of care
 - Production and consumption
 - By sex also, or other characteristic that may be important to the care economy and to future change
 - Units are all in terms of time, could change to monetary
- 2. Imagine some scenario of future change
 - In the population
 - In the care economy
 - In an interaction between the two
- 3. Combine age profiles and population projections to estimate aggregate production and consumption, take the ratio

Donehower & Kye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Data: Care Work Production

- 1. Unpaid Care Work
 - Korea: 2014 Korean Time Use Survey
 - U.S.: 2018 American Time Use Survey
- 2. Paid Care Work
 - Korea: 2015 Korean Census Micro Data (2014 KLIPS/2014 Regional Labor Survey)
 - U.S.: 2018 Current Population Survey

Donehower & Kve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Data: Care Work consumption

- 1. Unpaid Care Work
 - Korea: 2014 Korean Time Use Survey
 - U.S.: 2018 American Time Use Survey
- 2. Paid Care Work
 - Korea & U.S: National Transfer Account

Donehower & Kye

5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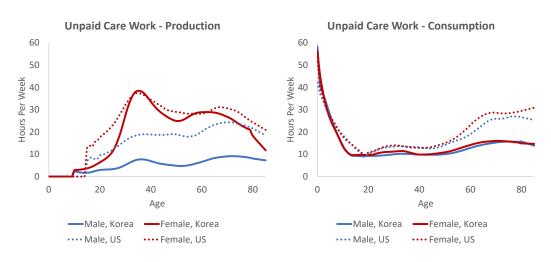
Data: Population projection

- 1. Korea: UN population projection/KOSTAT
- 2. U.S: UN population projection

Donehower & K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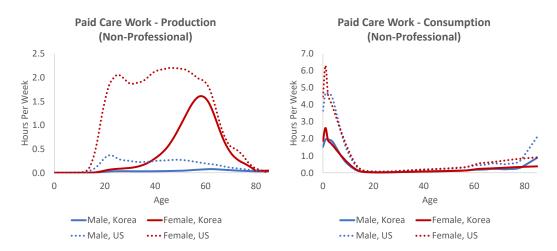
6

Age profiles, snapshots of the car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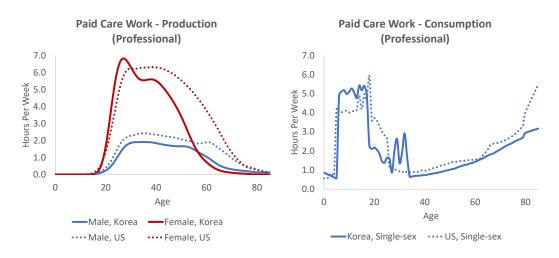
Notes: For Korea, data from Korean Time Use Survey 2014. For US, data from American Time Use Survey 2014. Production amounts are average time spent in household production activities by age and sex. Activities include direct care for children, elders, and community members as well as indirect care provided through housework, and household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nsumption amounts are imputed based on household structure and time produced.

Age profiles, snapshots of the car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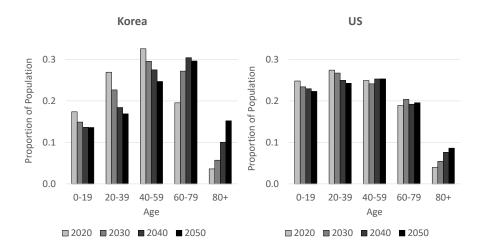
Notes: Paid care work weekly hours come from the 2018 Current Population Survey in the US and the Census in Korea, 2015. Occupational categories may not be a good match between US and Korea, so other data sources are being investigated, such as KLIPS. Consumption age profiles are estimated using US Consumer Expenditure Survey data, assigning spending on childcare, home health aides, and household services to individuals using consumer weights. Those profiles are then adjusted to time units by matching to the aggregate number of hours produc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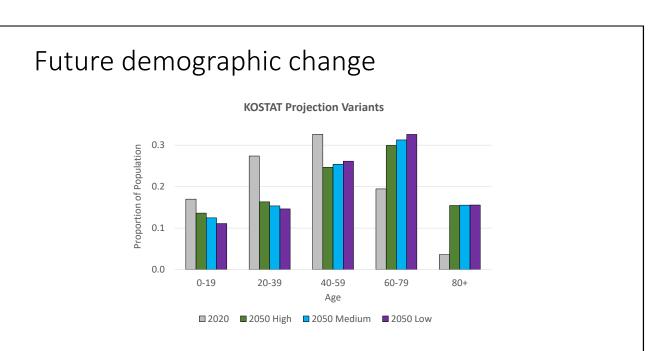
Notes: Professional care workers include teachers (early education, primary, secondary, tertiary), medical personnel, and social workers. Production is hours worked by persons in those occupation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US) or Census (Korea). Consumption is calculated using National Transfer Accounts profiles of consumption of health and education, adjusted so that the aggregate equals the total number of hours produced. Adjustments done separately for health and education.

Future demographic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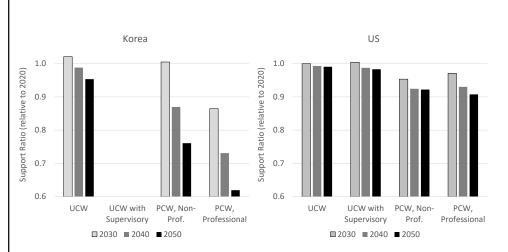
Notes: Medium variant projections from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50.

10



Notes: Data from KOSTAT. Relative to the "Medium" projection, "High" includes substantially higher fertility, longer life expectancy, and more migration. "Low" includes lower fertility (although in fact, the projected fertility for this variant at 1.01 children per woman would actually represent an increase in fertility compared to current levels), shorter life expectancy, and net out-mi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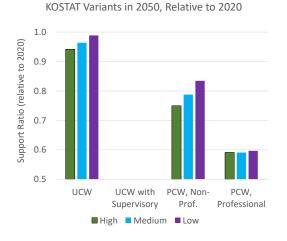
How will demographic change affect care?



- UCW least affected by population aging
- Professional PCW most affected
- Korea has a bigger challenge
 - Faster aging
 - Younger professional caregivers, but could be a cohort effect
- Supervisory care shows little impact from demographic change

Notes: Care support ratios are projected aggregate care production per unit consumption. Projected aggregates are weighted averages of care age profiles, with the weights provided by population projections. The chart shows the relative change in the support ratios compared to 2020 (i.e. 2020 SR scaled to 1.0).

How will demographic change affect care?



- Higher, younger population growth projection challenges the care economy more.
- Why? Because it increases care demand from "expensive" children.

Notes: Care support ratios are projected aggregate care production per unit consumption. Projected aggregates are weighted averages of care age profiles, with the weights provided by population projections. The chart shows the relative change in the support ratios compared to 2020 (i.e. 2020 SR scaled to 1.0).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Age profiles and care support ratios are powerful, flexible tools for measuring and understanding care economies.

Donehower & Kye

14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 Rapid population aging in Korea leading to rapid decrease in care support ratio
 - How to fill the deficit in care production?
 - Unpaid: Men's contribution
 - Paid: Occupation segregation by sex and age
- Implications of fertility decline and care economy
 - In the short run, positive impact on care support ratio
 - In the long run, negative impact on care support ratio

Donehower & Kye

Valuing Non-market Work and the Care Economy in South Korea

Jayoung Yo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Market versus Non-market Work
- Definition of Care work
- Valuation of Care Work
- Unpaid Work and the Economy
- Understanding Care Economy

Women were Always "Wor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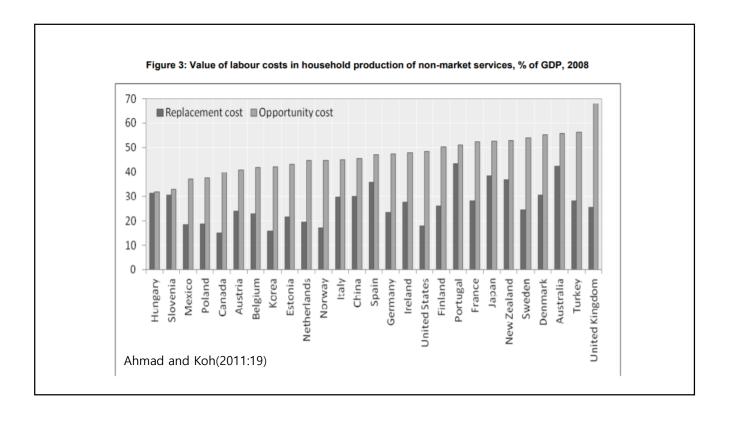
- It is misleading to talk of women's "entry" into the workforce. Besides formal employm ent, women have always worked in the home, looking after children, cleaning or cookin g, but because this is unpaid, it is not counted in the official statistics.
- To some extent, the increase in female paid employment has meant fewer hours of unpaid housework. However, the value of housework has fallen by much less than the time spent on it, because of the increased productivity afforded by dishwashers, washing machines and so forth. Paid babysitters and cleaners employed by working women now also do some work that used to belong in the non-market economy.
- Nevertheless, most working women are still responsible for the bulk of chores in their h
 omes. In developed economies, women produce just under 40% of official GDP. But if t
 he worth of housework is added (valuing the hours worked at the average wage rates of
 a home help or a nanny) then women probably produce slightly more than half of total o
 utput.

Pursuing work-family balance policies

- South Korea has undergone important structural changes towards neo-liberal regimes since the financial crisis 1997 tha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gender relations
 - 'Productive welfare', the main principle of the restructuring
 - Putting emphasis on individual economic independence and self-sufficiency
 - Social safety nets for those failing in the labor market and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for those with limited or no employability
 - Deregulation, privatization, and small governments leading to undermining "family wage" as men face job insecurity and low-wage work
- Since Rho Moo-Hyun government (2003–2008) emphasized the necessity of family policy in current Korean societ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xpansion and socialization of formal childcare and elderly care services has been impressive, and family policy has become explicit as a policy agenda

Limitations of Work-family balance policies

- Implications for women and distributing costs of children
 - Favoring a dual-earner arrangement, in support for ALM(active labor market) strategy
 - Encourage women, even with small children, to participate in the labor market
 - Work-Family balance targeting women
 - Public support for non-parental child care could only be justified conditional on maternal e mployment and fertility.
 - Parents responsible for "investing" in children with time as well as money
 - Reinforcing the notion of unpaid work as neither economic nor productive
 - Interests in children's education because creating "pay-off" in the future
 - Largely ignoring the distribution of paid and unpaid work between men and women
 - Failure to put work-family balance policies in a broader context of valuing care and redistributing paid and unpaid work between men and women, and between the state, family, and the market



Capitalism and Devaluation of Paid Care

- Downsides of emphasizing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and trusting the ever-expand ing markets as sources of economic prosperity?
 - This often includes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such as paid child and elder care in the market
- Markets do not represent the economy as a whole. They are limited in scope.
- Market processes are relevant only to goods and services that are bought and sold, goods and s
 ervices to whi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can be enforced. Competitive markets can provide e
 fficient means of structuring many important economic activities. But they often fail to deliver
 the best possible results.
- Children (or the elderly and the dependents) could suffer from lack of care.

Where we stand now

- What happened to caregiving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 Development did not facilitate caregiving and enhance human well-being, rather it came at their expense.
 -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that rely on increases in women's paid work are not always matched by a reduction in their unpaid care work
 - The results is an extension of the total time spent by women on paid and unpaid work, as well as a reduction in the quality of care work both in unpaid and paid care
 - especially through a squeeze on time for care
 - · widening care caps along the line of class
 - · Socialization of care work created low-quality gobs for women
- Unfair and discriminatory employment practices ongoing in the labor market
 - Family responsibilities as a source of discrimination
- Social reproduction in crisis
 - The lowest low fertility in the world
 - Declining marriage rate among people in their 20-30s

Valuing Unpaid Care Work in South Korea

- Socialization of care work tends to paradoxically make the economic values of care work invisble.
 - Economic values of unpaid work still stands at a large scale even with the development of care policies.
 - Unpaid work increases the consumption possiblies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 In this study, we estimate the time devoted to care work and its economic value by using the 2019 Korea Time Use Study survey survey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And present changes in economic values of unpaid care work during 1999-2019.

Challenging Concepts of Care Work

- Conceptual Definitions of Care Work
 - Outcome utility versus Process utility
 - The Third Party Criterion
- Conceptual Definitions of Broader Human Capital and Social Investment
 - Education, health, child care, and elder care are all growing "industries" that depend on large quantities of market and nonmarket labor
 - Modern efforts to measure the value of investments in education and health are inconsistent in their treatment of non-market inputs.

Three Reasons to Estimate the Value of Unpaid Child Care

- 1. The "human capital sector" is an important part of the economy that is currently omitted from the national income accounts. The cost of producing the next generation has implications for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Abraham and Mackie, 2004).
- 2. The time and effort that parents—mothers in particular-- devote to children significantly reduces their lifetime income. Yet it provides important benefits to employers and taxpayers, who make claims on the human capabilities that parents create. Better estimates of the resources that parents devote to children could strengthen the case for more public support for parenting(Abraham and Mackie, 2004; Folbre, 2005; Folbre, 2018; UNECE, 2017; van de Ven, 2018).
- 3. Many specific public policies, including payments for care for the disabled, children and the elderly ignore the time costs, thereby underestimating the genuine costs of what would been needed for care.

Three Steps in Estimating the Value of Unpaid Child Care

1. How many hours of care did men and women provide per day, on average, i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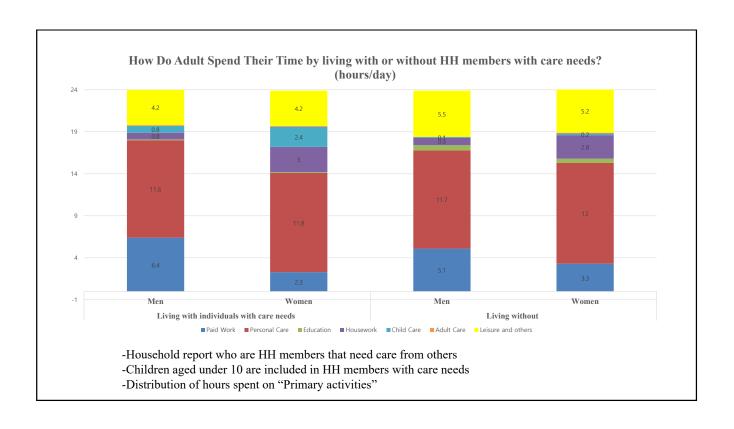
Rather than relying on conventional measures of "primary" child care activity or simply adding hours of "secondary" care we develop a more disaggregated categorization of car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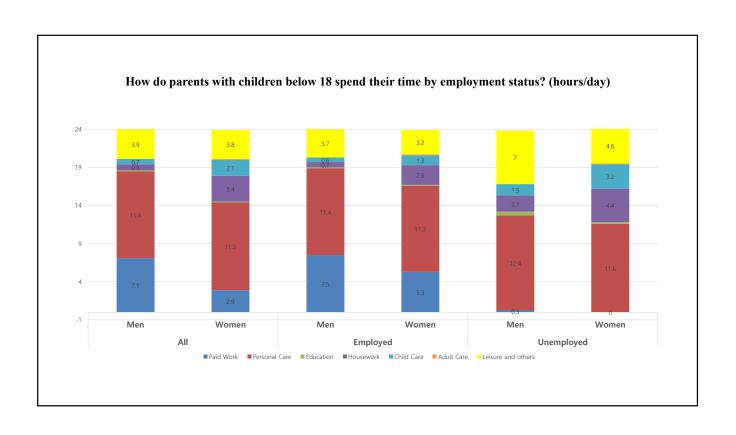
2. How did these hours vary in terms of quality and productivity?

The ranges of disaggreted care work conforms to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sponsibility, the importance of child-specific knowledge, and potential impact of parental education and experience, all of which can be related to productivities of care work.

3. How does the value of these hours, estimated using a replacement wage, compare to the value of paid work?

This comparison is not intended as an accurate measure of the relative value of these two types of work. It represents, at best, a lower-bound estimate for unpaid care. However, it helps place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is non-market contribution into perspective.





Care work more then an "activitiy" Daily minutes 300 200 150 Women Individaul above 19 Parent with children Individuals > 19 below 18 living with adult care needs ■ Direct Care Work ■ Indirect Care Work ■ Supportive Care Work

Estimation of care work based on primary activities underestimates hours devoted to care work

Categorization of care work

Direct Care Work Based on primary activities Indirect Care Work Housework "Spending time with" Supportive Care Work , when neither direct

care nor indirect care

Economic Value of Unpaid Care Work by Individuals above 19 in 2019 (100 million won)

Generalist replacement wage "housework and babysitter" 12,348 won

Specialist wage

Occupations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Wage s	rate
Religious Jobs	18,420	
Education Professionals and Re lated Occupations	28,613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Jobs	18,420	1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Jobs	18,420	ı
Skilled workers related to agric ulture, forestry and fishing	13,735	
Cooking and Food Service Jobs	12,430	1
Unskilled food related jobs	11,591	
Textile and leather related tech nical workers	13,263	
Cleaners and environmental cle aners	11,968	
Management Finance Expert an d Related Positions	27,964	
Sales-related unskilled jobs	12,107	
car driver	13,890	
minimum wage	8,350	
minimum wage	8,350	
	ated Occupations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Jobs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Jobs Skilled workers related to agric alture, forestry and fishing Cooking and Food Service Jobs Unskilled food related jobs Textile and leather related tech nical workers Cleaners and environmental cle aners Management Finance Expert an d Related Positions Sales-related unskilled jobs ara driver minimum wage	ated Occupations Religious Jobs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Jobs Health and Social Welfare and Religious Jobs Skilled workers related to agric alture, forestry and fishing Cooking and Food Service Jobs 12,430 Unskilled food related jobs Textile and leather related tech incial workers Cleaners and environmental cle aners Management Finance Expert an It Related Positions Sales-related unskilled jobs Sales-related unskilled jobs ara driver 13,890 minimum wage 8,350

		Generalist Replacement Wage		Specialist Replacement Wage	
		Men	Women	Men	Women
	child care under 10	16,185	50,031	24,144	74,633
Direct Care	Childcare over 10	1,484	6,946	3,438	16,095
Breet Care	Adult care with car e needs	2,060	3,406	3,072	5,080
	Adult care	3,119	3,988	4,653	5,950
	Work for consumpt ion	5,471	6,698	6,086	7,451
	Meal Preparation	15,184	88,509	15,285	89,096
	Dishwashing	9,391	46,363	8,815	43,521
Indirect Care	Laundry	4,246	29,680	4,560	31,879
	Cleaning	19,123	54,399	18,534	52,725
	Housing	5,956	4,823	13,489	10,923
	Purchasing	13,074	33,886	12,818	33,225
	Travel	15,303	32,333	17,215	36,371
Supportive Care	Voluntary work	4	34	3	23
	Leisure	16,582	18,437	11,219	12,474
Total		127,182	379,533	143,331	419,445

			Hours			Yearly Economics Values(Thousand won, 100 mil lion won)		
			daily minutes	yearly hours	ratio of unpa id/paid hour s(%)	generalist replacement wage	specialist replacement wage	
Individual above 19		Men	80	484	26	5,838	6,579	
marviduai a	100VE 19	Women	228	1,387	77	16,813	18,581	
	Parents living with children below 18	Men	120	730	39	9,002	10,094	
	children below 18	Women	372	2,266	126	27,865	32,611	
	Parents living with preschool children	Men	184	1,117	60	12,855	14,305	
Household		Women	511	3,109	173	35,393	41,733	
	Individuals > 19 livin g with HH members with care needs	Men	201	1,221	66	16,585	20,705	
		Women	322	1,956	109	24,679	28,067	
All populations aged above 19 Men		Men				127,182	143,331	
(100 million won) W		Women				379,533	419,445	

How big economic values of care work compared to the market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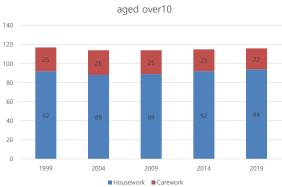
- Economis values of unpaid care work accounts for 38-41% of market output devoted to educational, medical and welfare, and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service.
- Economis values of unpaid care work accounts for 43-50% of household expenditure devoted to educational, medical and welfare, and accommodation and restaurant service.

					Specialist Repl acement Costs
			Size(billion)	Relative Share(%)	Relative share(%)
GDP(2019년)			19,190,399	4.3	4.98
	Manufacturing		4,859,456	16.98	19.67
	Service		10,954,240	7.53	8.73
		Educatioanl Se rvice	937,179	88.05	102.02
		Medical and w elfare service	885,881	93.15	107.92
		Accomodation and Restaurant service	457,416	180.4	209.02
		Total	2,280,476	38.18	41.92
Government Spending(2018)					
			902,593	91.42	105.93
		Education	1,485,868	55.53	64.34
		Social Security	1,632,798	50.54	58.55
		Total	4,021,259	20.52	23.78
Household Fin 019)	al Consumption	Expenditure(2	8,568,259	9.63	11.16
		Medical	487,654	169.21	196.06
		Education	482,757	170.93	198.05
		Accomodation and Restaurant	926,130	89.1	103.23
		Total	1,896,541	43.51	50.41

Changes in the unpaid care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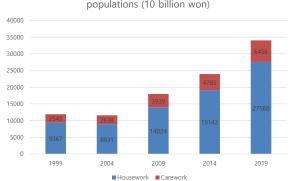
No remarkable reductions in hours spent in unpaid care work by an individual

Mean Daily Minutes of Unpaid Work by Individuals



Increase in replacement wage rates and populations results in even greate rate of growth in the unpaid economy





Valuing care and gender equality

- If norms, practices, and policies leading to unequal division of labor is one of the solutions to gender equality,
- Possible strategy for unpaid care work to improve gender equality
 - 1) Recognize- through time use studies, satellite accounts, policies to support unpaid workers.
 - 2) Reduce- through policies to provide paid care.
 - 3) Redistribute- though polices to enable men to do more unpaid work and women to do less.
 - We did only 2) so far, have to do more on 1) and 3)
- Possible stratgegy for paid care work to improve gender equality
 - 1) Secure job stability
 - 2) Provide fare wages for care worker
 - 3) Make sure social security for care worker

Child and Elderly Care in South Korea: Policy Analysis with a Gendered, Care-Focus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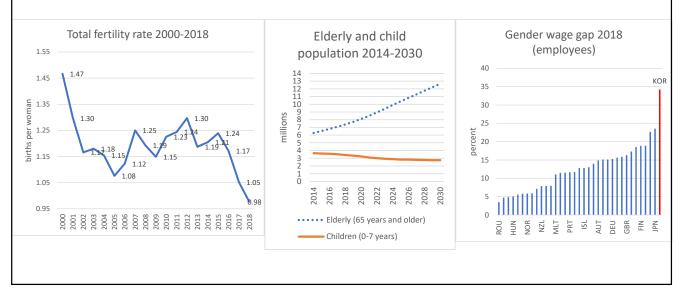
Martín Cicowiez Hans Lofgren

International Care Policy Conference
The Care Economy in Korea: Beyond COVID-19 and
Towards a Sustainable Care Society
June 1-3 (EDT) / 2-4 (KST), 2021

Contents

- Context
- Method and Data
- Results
- Concluding Rema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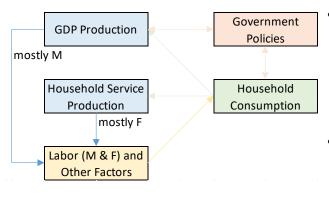
Context: Total Fertility Rate, Elderly and Child Population, Gender Wage Gap



Method: Why a Gender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Analysis of Care in Korea?

- Such a model can capture how government policies may address Korea's care and gender challenges, considering the links between
 - (a) car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gendered wage discrimination; and
 - (b)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including
 - · time use of women and men inside the home and in the broader labor market
 - · household well-being
 - · GDP and non-GDP (household) production
 - fiscal indicators
- → GEM-Care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Care analysis) shares key features with Fontana and Wood (2000) and is a descendant of Cicowiez and Lofgren (2017) and Lofgren et al. (2013).

Method and Data: The Structure of GEM-Care Korea



Note: arrows represent payment flows; figure is simplified (e.g., it excludes rest of the world); GDP from NIPA; non-GDP from KTUS + valuation (24.4%).

- 2018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for Korea
 - the main data input to the model
 - the first gendered SAM for Korea and the first care-focused SAM in the world.
- SAM dimensions:
 - · 46 activities and commodities
 - 4 labor categories; by skill (2) and gender (2)
 - 3 households: working-age head w/ children, working age w/o children, elderly h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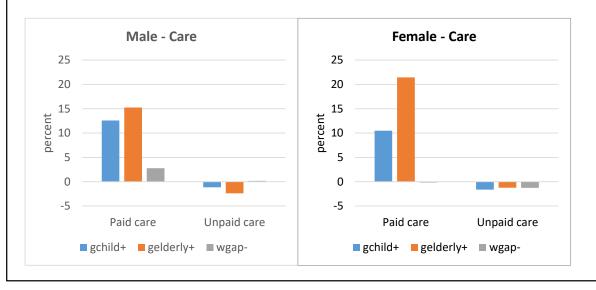
GEM-Care: Key Features Related to Gender and Household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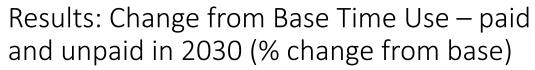
- Households view services produced by the household and GDP activities (private/government) as imperfect substitutes.
- Transfers between households and from government to households are in the form of payments and care services (labor).
- Wage discrimination à la Becker (a first for CGE models): part of the male-female wage gap is attributed to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wages of women are set too low, not fully reflecting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women compared to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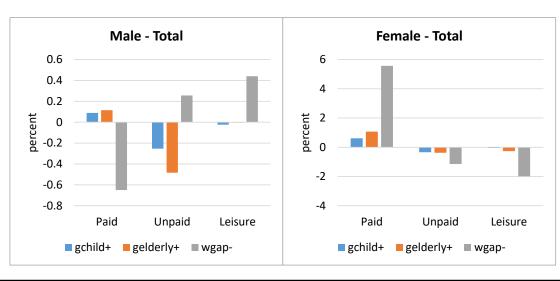
Simulation Analysis: Scenar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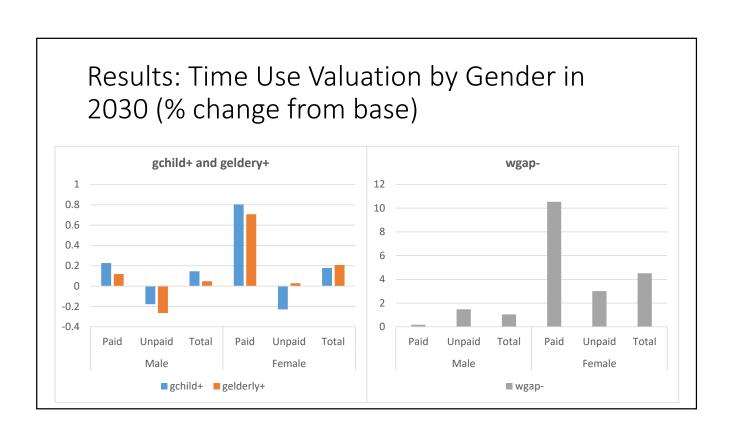
- base: business as usual 2018-2030 no policy changes
- **gchild+**: increase in gov spending on child care (+0.15% GDP; in-kind transfer) -- to address quality concerns (Sujeong 2017)
- gelderly+: increase in gov spending on elderly care (+0.15% GDP; inkind transfer)
- wgap-: decrease in (discriminatory) gender wage gap (-50%) (Lee 2020)
- The non-base scenarios start to diverge from the base in 2022.
- In all scenarios, additional fiscal space from income tax and exogenous population growth.
- In the paper, additional scenarios address the effects of higher careworker wages, a higher fertility rate, and a set of combined changes.

Results: Change from Base Time Use – paid and unpaid care in 2030 (% change from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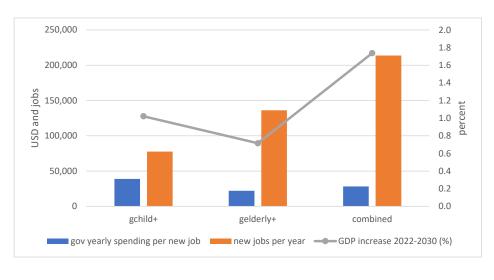








Results: Impact of Additional Care Spending on Employment and GDP



Concluding Remarks

-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policies addressing care and wage discrimination can make a difference by
 - improving the well-being of households with care responsibilities
 - freeing up time for women for jobs that match their education
 - raising women's wages relative to men's, not only changes incomes but also encouraging changes in gendered time use
- The simulations also show that focus on the GDP part may lead to misleading results: gains in GDP production and consumption are mainly due to reallocation from non-GDP sectors.
- The sensitivity analysis indicates that the strength of these effects depend on households and firm responsiveness to changed incentives.

Concluding Remarks (cont.)

- The simulations show trade-offs and call for policy packages.
 - Example: in the absence of increased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and elderly care from outside the home, increased female wage work in the wake of reduced wage discrimination could lead to reduced care for children and elderly.
- The size of adjustments depend on the flexibility of gender roles both in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and in the broader labor market.
- Model parameters that capture wage discrimination and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between the two genders reflect broader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that, in order to change in favor of gender equality, would require parallel actions by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at change the attitudes and laws that govern gender roles.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BUILDING A CARE ECONOMY: FROM COVID-19 RESPONSE TO RECOVERY

세션 3 글로벌 팬데믹 시대의 불평등 심화, 그리고 극복: 돌봄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색

기조발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SESSION 3 TACKLING WORSENING INEQUALITY IN THE TIME OF A GLOBAL PANDEMIC: CARE ECONOMY AND SUSTAINABLE GROWTH

Keynote speech

Joseph Stiglitz University Professor of Economics, Columbia University /

Laureate of the Nobel Memorial Prize in Economic Sciences (2001)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BUILDING A CARE ECONOMY: FROM COVID-19 RESPONSE TO RECOVERY

세션 4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돌봄 위기

사회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발표

문현아 &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실장

전지원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토론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SESSION 4 THE IMPACTS OF COVID-19 ON THE EXACERBATION OF CARE CRISIS IN SOUTH KOREA

Moderator

Seung-Eun Cha Professor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Suwon

Presentation

Jiweon Jun Senior Research Fellow, CTMS

Hyuna Moon & Senior Research Fellow, CTMS

Young Sug Heo Representativ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Yunkyung Lee Director, Department of Population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anel

Nam Hee Do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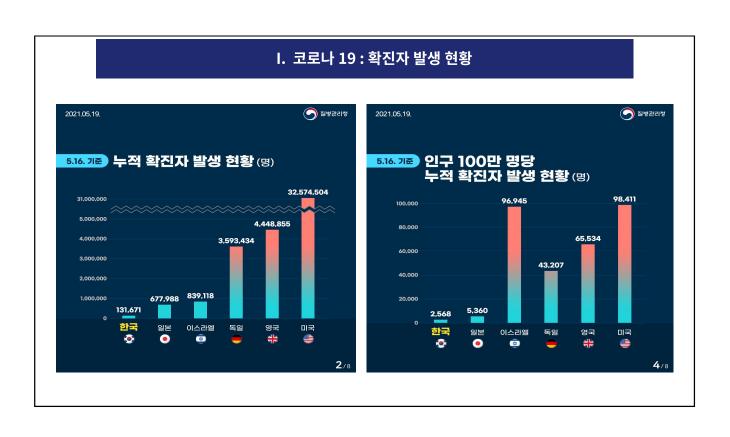
Hyun Mee Kim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

한국의 코로나19와 노인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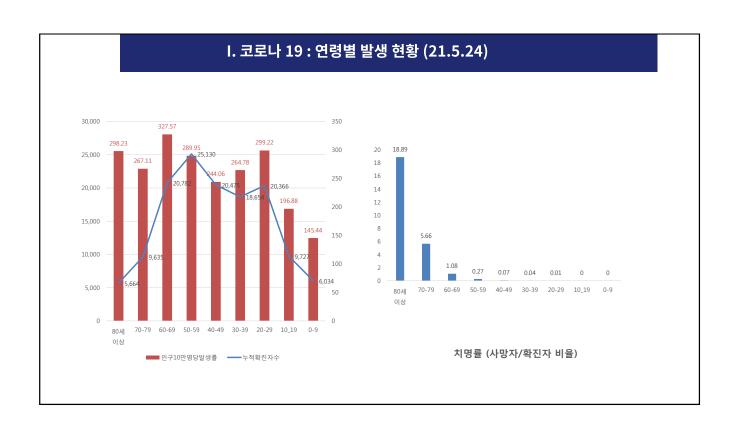
2021.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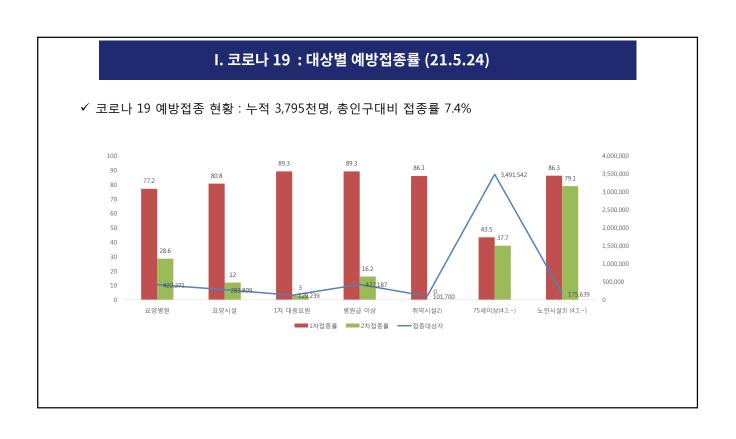
이 윤 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코로나 19 발생특성









I. 코로나 19: 노인 주요 이용시설 대응 방역

- 瀪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진행 중
 - ✓ 노인복지시설 및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17)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메뉴얼('19)을 통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 대응 방법 제시
 - ✓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라 중앙정부의 공통 지침 배포: 지원 / 코로나 단계별 행동지침

장기요양기관의 코로나 대응 지원: 직원 지원금, 소독 비용 등

장기요양기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배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지침, 코로나 발생시 조치

정부, 지자체의 기관 폐지, 업무 정지 등의 손실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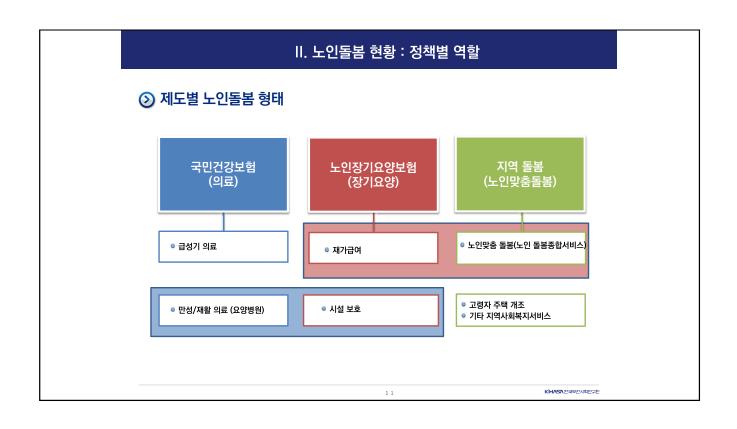
√ 요양병원 / 요양원 : 면회 제한, 외출/외박 제한 ✓ 주간보호등 이용시설: 축소 운영, 폐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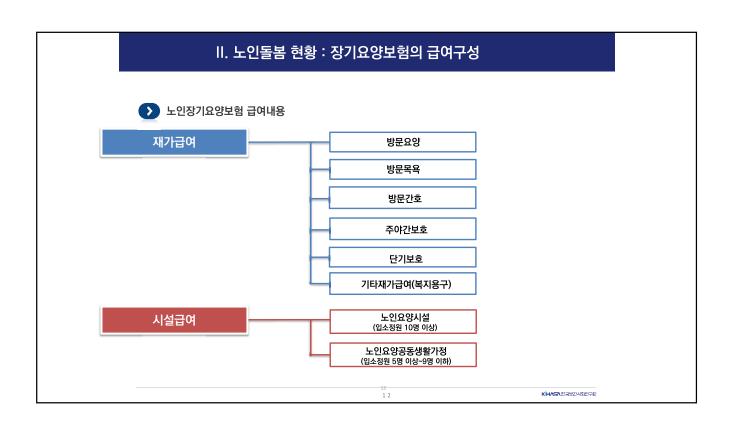
1. 코로나 19 : 노인 돌봄 파급효과

- Description (2015) COVID-19 확산: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문제 대두
- ✓집단 시설 중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집단 감염 위험 노출
 - ▶ 노인 주요 이용 시설의 집단 발생 사례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6명)
 - 경기 부천시 주간보호센터2 관련(121명)
 -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 관련(66명)
 - 경북 김천시 노인요양시설관련 (58명)
- ✓ 노인 주간보호 (이용시설)의 시설 폐쇄/휴관으로 돌봄 공백 발생(출처:보사면, 코로나 19대응정기요양기관조사, 2020)
 - 기관 일시적 휴관: 48.5% / 기관 일시적 폐쇄: 11.8%
 운영일수의 감소: 38.5% /이용자 규모 감소: 64.1%
- ✓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
 - 주간보호 휴원, 폐쇄로 인한 가족 돌봄 코로나 감염 불안으로 인해 가족돌봄

II. 노인돌봄 현황







II. 노인돌봄 현황 : 돌봄 필요 규모

🕥 돌봄 대상자 정의 및 규모 추정

돌봄 필요의 조작적 정의

- 일상생활수행(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에서 의 수행에서의 제한자
- ADL제한자는 우선 돌봄대상(요양), IAD제한자 광의의 돌봄대상
- *ADL: 식사하기, 옷갈아입기, 세수 및 목욕하기, 이동하기 등의 활동 *IADL: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활동, 외출, 돈 관리 등의 활동

돌봄 필요 노인 규모는?(2019년기준)



주: 노인실태조사(2017년) ADL과 IADL제한자 비율, 장기요양보험통계면보(2019) 노인요양시설거주비율을 활용하여, 통계청(2019.3) 인구추계 결과를 반 영하여 저자가 추정한 결과임.

II. 노인돌봄 현황: 서비스 이용 규모

- ✓ 노인돌봄 사회화의 전환 속에서의 코로나 발생 -> 노인 돌봄의 제가족화로 다시 복귀하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08년) 이후 이용자 크게 확대 : 노인 인구의 약 10%수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II. 노인돌봄 현황: 서비스별 이용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현황(2019)

(단위:%)

			재기	급여	시설급여				
구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용구	소계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전체	53.0	10.5	2.0	15.0	0.5	43.8	46.7	43.8	2.9
1등급	30.7	7.5	4.2	0.1	0.3	47.4	53.2	47.7	5.5
2등급	40.0	9.0	2.8	3.9	0.6	47.1	53.8	47.1	6.7
3등급	58.2	11.5	2.3	1.2	6.9	50.9	40.1	36.0	4.1
4등급	68.8	13.0	1.9	17.2	0.4	47.5	21.0	18.9	2.1
5등급	50.6	9.2	1.2	46.3	0.5	32.2	4.9	4.4	0.5
인지지원 등급	-	-	-	42.3	0.06	14.8	0.09	0.09	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9 주: 1) 이용 비율 = (급여이용수급자/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100

- * 요양병원 이용자수
- 노인 중 2.7%(208천명, 19) (이규식 외, 2017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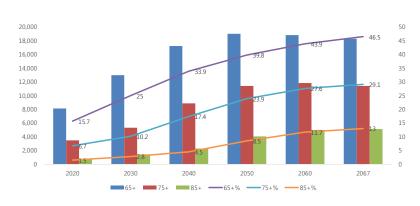
⇒ 노인 돌봄 : 집합시설 중심의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확대

Ⅲ. 팬더믹 이후 노인돌봄 대안모색

Ⅲ. 팬더믹 이후 노인돌봄 대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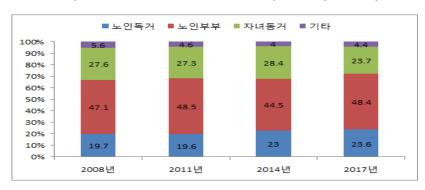
✓ 노인 돌봄은 다시 가족 중심으로 전환될 것인가?

• 노인의 인구 변화



Ⅲ. 팬더믹 이후 노인돌봄 대안 모색

✓ 노인 가구 형태 변화 → 가족 돌봄 자원 감소 (배우자 중심 돌봄)



자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각년도

참고 : 자녀동거 비율 53.8 (94) → 48.6(98) → 38.6(04) → 23.7(17) 노인부부 비율 29.1 (94) → 27.9(98) → 34.4 (04) → 48.4(17)

8 **KİHAS**A 한국보간서회인구한

Ⅲ. 팬더믹 이후 노인돌봄 대안 모색

- ❷ 요양시설 공간 개편과 인력 확대
 - ✓ 요양시설 공간 개편: 4인실 기준 → 개인실 전환
 - ✓ 유니트 케어 확대
 - ✓ 전담 돌봄 제공가능 돌봄 인력 확대
- ▶ 돌봄에서의 과학기술 접목 확대
 - ✓ 노동집약적 돌봄 → 가사, 돌봄 기기 공급 확대
- ☑️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 √ 육아휴가에서 가족 돌봄 휴가 확대
 - ✓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정 : 연금, 보수 등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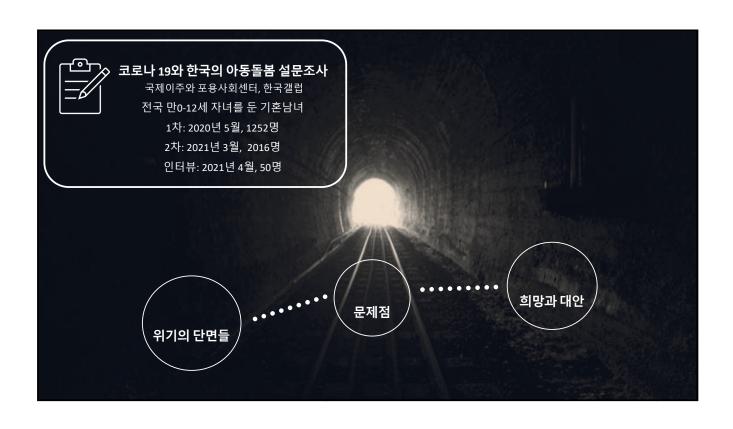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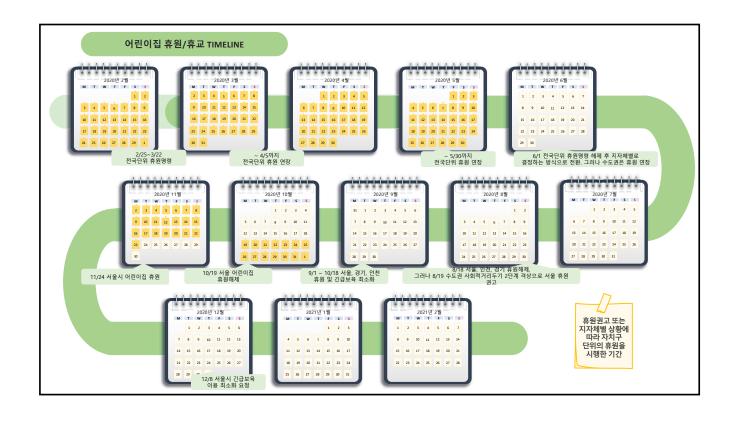
코로나 19와 자녀돌봄: 만 0-12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험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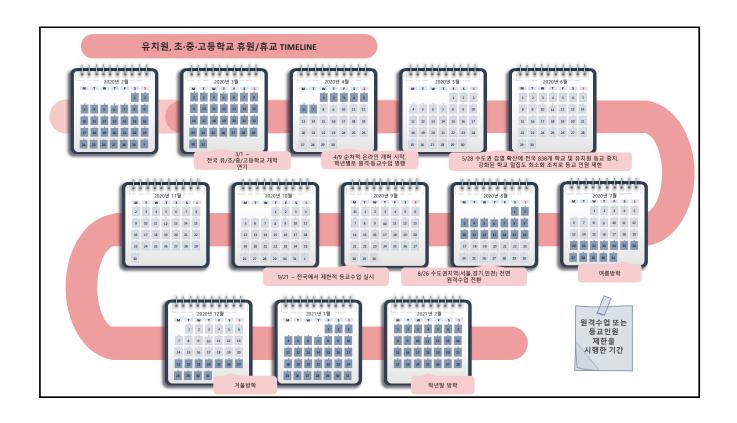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전지원 (Jiweon Jun)

이토 펭 (Ito Peng, Univ. of Toronto), 강은혜 (Eunhye Kang), 은기수 (Ki-Soo 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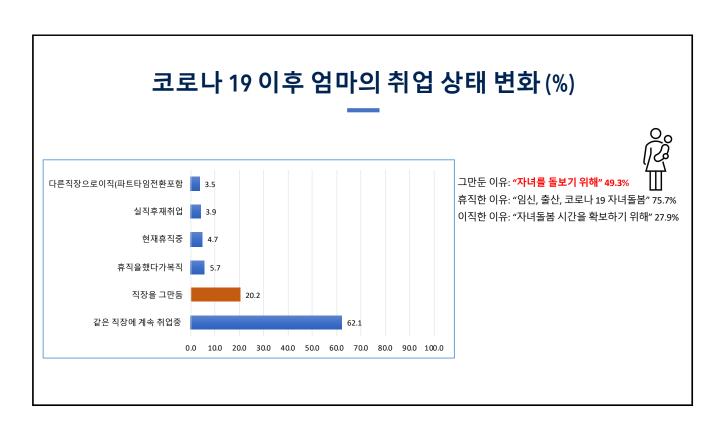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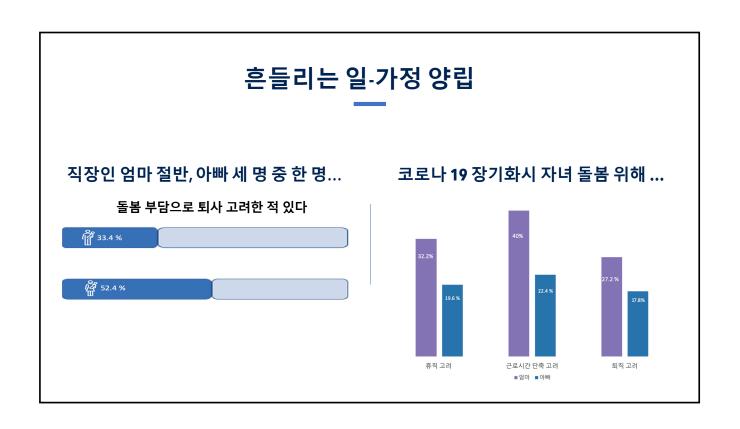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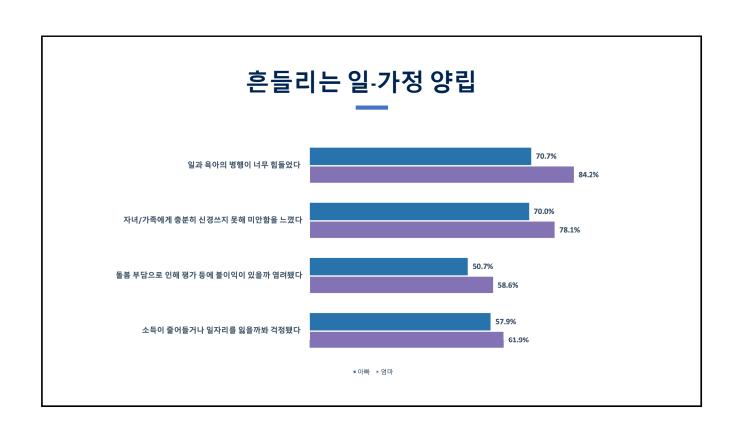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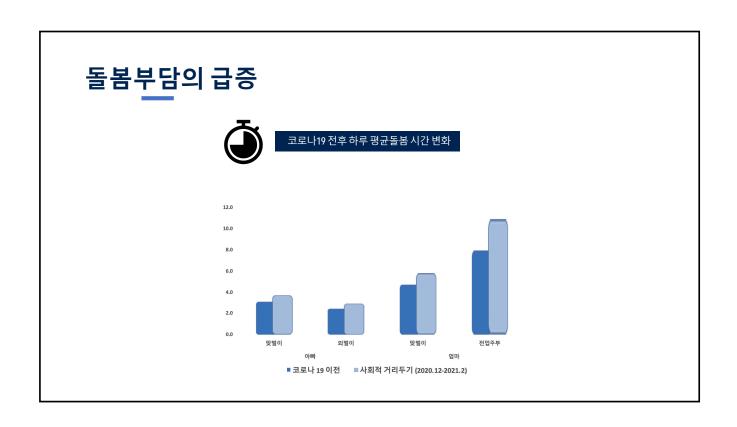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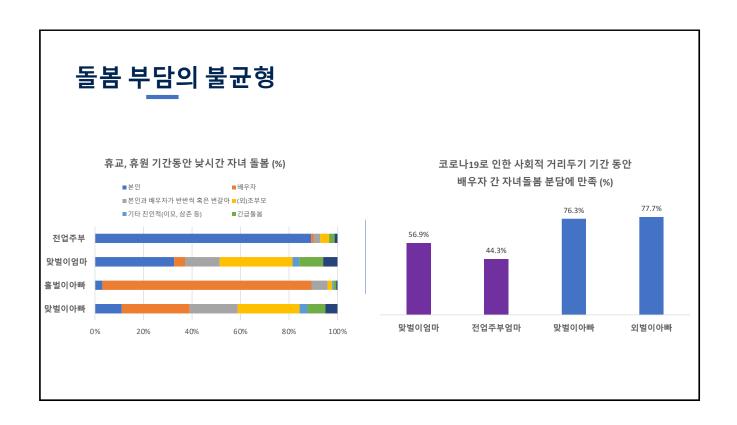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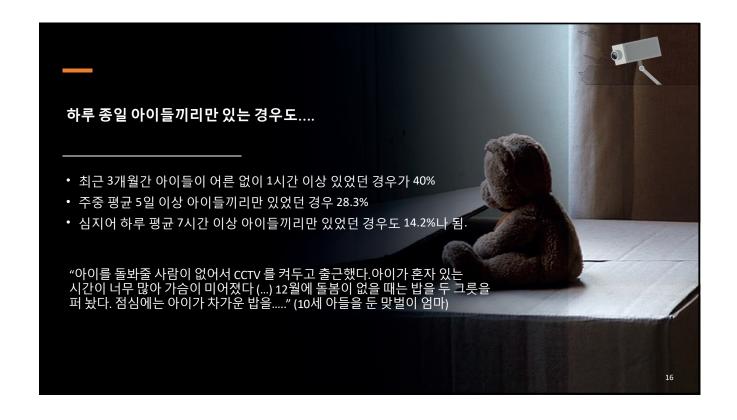






정신·신체 건강의 위기 코로나 19 기간동안 자녀돌봄으로 인해... ... 평소보다 **우울**하다 39.7% 56.4% ... 평소보다 **피곤**하다 64.4% 78.7% ···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38.4% 54.5% ··· **스트레스**를 받는다 72.9% 58% ··· **신체적 부담**을 느낀다 53.1% 69% ... 건강이 나빠졌다 27.8% 41.9%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이에게도... • 아이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늘었다 아빠 46.6%, 엄마 65.6% •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 아빠 44.1%, 엄마 68.8%





가족돌봄휴가, 혹은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지난 1년간 가족돌봄휴가 사용여부



- " 가족돌봄휴가가 뭔가요? "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쓸 수 있는 건가요?"

가족돌봄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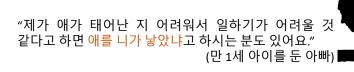
- 남편분은 돌봄휴가를 쓰셨나요?
- 쓰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 공공기관인데요?
- 상사분이 굉장히 싫어하셔서 쓰겠다고 말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 혹시 거절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 이미 신랑이 연차를 많이 쓴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신랑이 들은 말이 '니 와이프는 뭐 하는데?'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엄마)

19

가족돌봄휴가?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 하고 복직하면서 연봉 협상을 했는데 팀장님이 "복직해서 아이 돌보고 이러느라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전혀 가족 돌봄 휴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만 2세 아이를 둔 맞벌이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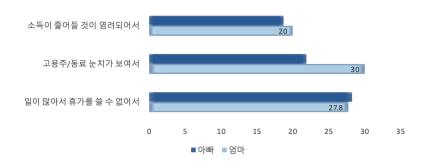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대신해줄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그 분은 그렇게 해서 빠져버리면 <mark>저희가 그냥 무조건, 무보수로 땜빵</mark>을 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는 그렇게 해줄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단기간에, 그 기간만 딱 구할 수가 없으니까" (유치원에서 일하는 맞벌이 엄마)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 (복수응답, %)



21

코로나 19 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자녀 돌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가족돌봄휴가 사용 의무화	31.3%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남녀 구분 없이 유연근무 활성화	15.7%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남녀 구분 없이 재택근무 활성화	15.3%
가족돌봄휴가 지원 비용 증액	10.6%
긴급돌봄 이용 조건 완화	9.9%
긴급돌봄, 원격 수업 등 프로그램의 내실화	9.1%
돌봄 관련 인사 불이익 방지 제도 마련	4.5%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2.8%
기타	0.7%

재택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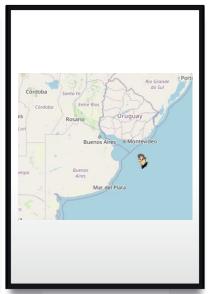
- 응답자의 72.8% 매일 직장에 출근해서 근무 (재택근무 하지 않은 이유 1순위: 직장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아서 81.7%)
- 재택근무 중 엄마 절반(52.4%)이 "주돌봄자"로서 돌봄과 일을 병행 (배우자와 번갈아 23.8%), 주돌봄자 아빠는 17.6%
- 돌봄과 일을 병행해야 해서 더 힘들었다
 - 엄마의 80.1%, 아빠의 64.1%

"저희 애들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쌍방향 수업이 거의 없었고, 그냥 다 온라인으로 교육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걸 애들이 하루 종일 그냥 보는 거였어요. 플레이 해 놓고 다른 짓 하고 (...) 작년에는 되게 조바심이 있었어요. 아이가 1년을 이렇게 날리는구나."

(초등학생 맞벌이 엄마)







지구 건너편 우루과이에서는..

엄마이자 회계사인

학생-가족-교육시스템 "Team": 국가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워격수업 과려 정책 개박 (Plan Ceibal) 모든 학생들이 개인 사용을 위한 컴퓨터 힌 - 대와 무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게 됨.

High-Quality 의 화상회의 네트워크를 구축, 전국 1500개 이상의 교육 시설이 화상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

온라인 전용 커리큘럼 개발, 인적, 기술적 지원, 2013년부터는 학생 중심의 심도깊은 학습을 위한 방법론 개발을 통해 실시간 원격수업의 질을 높임

돌봄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와 어린이들을 위한 결실로 돌아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성 취업률, 실업률 등에 대한 코로나 19 영향 적음 (ILO, 2020)

25



코로나 19 기간 동안의 돌봄 위기

돌봄공백

돌봄부담의 급증

돌봄부담의 불균형

- 코로나 19는 기존의 돌봄 부담의 불균형과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드러냄.
- 가족들이 돌봄 공백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보여줌.
- 그리고 돌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줌.

코로나 19 기간 동안의 돌봄 위기

돌봄공백

돌봄부담의 급증

<u>돌</u>봄부담의 불균형

- 설문 및 인터뷰 결과는 돌봄 부담의 증가가 엄마의 경제활동 및 정신건강, 웰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냄.
- 사회적 거리두기는 돌봄·교육기관의 휴원과 재택·유연근무 등 일터의 방침이 함께 고려되어 시행되어야.
- 돌봄 인프라에 투자해야. 돌봄이 이뤄지지 않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남.
- 기업, 기관 등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근무 문화를 바꾸고 돌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어야함.
-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때, 구체적인 시행 여부를 모니터하고 세밀하게 측정, 평가 할 필요 있음.
- 여러 정책들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음. 특히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에서는 어떻게 남녀 모두 돌봄 부담을 나눌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





코로나19와 이주여성의 돌봄

문현아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2021.6.2.(수) 세션 4. 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돌봄위기

오늘 논의의 주제

- I.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주여성의 현실
- Ⅲ. 코로나19와 돌봄의 문제: 무급/유급 돌봄 노동Ⅲ. 이주여성과 돌봄 쟁점의 대안 모색

I.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이주여성의 현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 코로나19로 인한 이주민/이주여성의 현실?
- 감염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응조치가 가능한가?
- 감염시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는가?
- 기저질환에 취약한 상황은 더 적극적으로 보완되었는가?
-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에 대한 사회적 조치는?
- 기본적인 생계와 일자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는?
- 노동환경의 방역과 보호는?
- 안전한 가족관계 보장은?
- 사회보장제도, 복지체계의 국적자 중심주의의 대안은?

이주민 집단 감염 사례 : MBC 뉴스 보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8901_34936.html

- 뉴욕에서도 외국인 집중 주거지역에 감염율 높다(Guadagno, 2020)
- 강원도 강릉. 외국인 노동자 40명 넘게 무더기 확진(2021.5.4)
- 건설 현장이나 채소 밭에 일하러 온 러시아인들 다수. 집단생활 방역이 허술했다.
-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에 집합금 지 명령을 내리고 음식적 운영시간도 저녁 9시로 제한.
- 별도 해제 요청시까지 외국인들 전체 검사를 유지.
- 외국인들의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mark>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mark> 검사를 진행하기로.

???? 대책은?

Ⅱ. 코로나19와 돌봄의 문제: 무급/유급 돌봄 노동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원칙과 변화

(문현아, 허오영숙, 2021)

- 2020년 3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발표: 외국인 언급 없음.
- 3월 경기도 발표: 모든 경기도 주민 대상. 외국인 제외
- 4월 이주관련 단체 인권위 진정
- 6월 서울시. 취업과 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한지 90일 넘는 외국인 주민 포함
- 2021년 1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외국국적 동포 포함.
- 2021년 4월 중앙정부 긴급생활비 지원 발표: 외국인 별도 언급 없음.
- 4월 이후 기초자치단체 발표: 외국인 조항 없거나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인 경우로 한정.
- 난민은 난민법에 근거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하나 재난지원금에서 제외.

지원과 연구 조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바보의 나눔]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이주민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 이 <지원사업>은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생겨난 공적 지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2020년 3월 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는 이 <지원사업>을 토대로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실태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돌봄과 코로나19로 인한 배제 1 : 세대주/국내인 중심으로 지원된 정부의 지원금

-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해서 손녀딸과 손자를 돌보고 있는데, 사위가 일한다고 주소를 이전해서 나간 뒤 연락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사위가 세대주인데, 신청했는지조차알 수가 없잖아요." [60대, 우즈베키스탄, 동포]
-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남편이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아 시동생이 살해된 후 본국을 떠나 한국으로 와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가족 모두 인도적 체류자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계의 유일한 수입원인 남편의 일용직 일자리마저 끊긴 상태입니다. 인도적 체류자여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삶의 환경과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30대, 파키스탄, 인도적 체류자]

- "6세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해외입양인이 싱글맘의 경우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으며, 한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혜택으로부터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 보조교사로 일하며 방과후 교사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실직될 상황입니다." [40대, 네덜란드, 해외입양인]
- "남편과 맞벌이였으나 코로나19로 남편은 실직을 당하고 저도 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 어서 정부의 생활이나 양육, 교육, 부양 등의 지원 대상에서 벗 어나 있습니다. 첫째 아이 어린이집 등원을 준비하려 교육비 지 원 서비스를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는 없고 어린이집 원비까지 인상되어 아이 등원을 포기했습니 다." [30대, 중국, 동포]

돌봄과 코로나19로 인한 배제 2 : 일상에 더해지는 위기의 타격

- [40대, 필리핀, 결혼이주]
- 남편은 베트남 출신 여성과 이혼 후 본인과 재혼. 그 여성과의 사이 의 첫째 아이는 남편과 거주.
- 남편의 폭행으로 3년째 본인의 아 이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
- "제아들에 대한 양육비는 오로지 저 혼자 벌어 감당하며 살고 있었 는데, 최근 코로나로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고용 해지한다는 통 보를 받았습니다."
- [30대, 일본, 이주여성]
- 시부모와 동거. 결혼 초부터 남편 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큰 딸까지 성추행 할머니는 폭행.
- 10년동안 참고 살다 남편이 외도 하며 오히려 당당. 갈등 심화로 남 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
- "코로나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도 받기 어려운 상 황입니다"

- "이혼 후 혼자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멘트 작업을 오래 해서 진폐증이 생겼습니다. 진폐증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일을 계속하면 위험하다고 진단을 받아 일을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료를 내려면 일해야 해서 일자리를 찾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고구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0대, 캄보디아, 결혼이주]
- "아이가 둘 있는 지금의 남편과 5년 전에 재혼해 다시 아이 둘을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의 아이들 생활비는 주지만, 우리 사이의 아이들 지원은 하지 않으며, 아이들의 출생도 반대했습니다. 찜질방 내의 식당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 5일에서 이틀로 줄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20대, 베트남, 결혼이주]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와 건강보험 가입

- 외국인노동자 산재발생률은 2012-2017년 평균 1.16%. 동일기간 국내노동 자 산재발생률의 6배 가량 높다. 빈도가 높은 작업장은 제조업, 건설업, 기 타 사업 및 서비스업 순서(강민주, 2019: 10)
- 산업재해를 신고해도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크고 재활치료 등의 장기적 치료 혜택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강민주, 2019: 12).
- 외국인 노동자 중 사업자 등록이 안된 농,어업 사업장 근로 외국인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
- 내국인에는 섬, 벽지, 농어촌 거주자, 65세 이상자, 장애인, 휴직자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제도. 이주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부 비자 체류자에 한해 50% 경감제도가 있다.
- 내국인 건강보험 적용률(96.8%) + 의료급여 적용률(2.9%) = 전체 의료보장 적용률(99.7%)
- 이주민 건강보험 적용률(76.9%) + 의료급여 적용률(0.2%) = 전체 의료보장 적용률(77.1%)
- 비정규 체류자 포함 의료보장 적용률(62.4%) -> 의료보장 미적용인구 73만명 (이주민과 함께, 2020)

한국인의 삶 곳곳의 현실에 함께 하고 있는 이주여성 노동의 현장

•양계장, 상추재배, 화훼단지, 자동차 부품, 버섯공장, 고구마, 핸드폰 장사, 플라스틱 가드레일, 미싱 디자인, 밧데리 공장, 고추, 오이, 양파, 가지, 사과, 전기 케이블 회사, 수영모자 회사, 수공예품, 통역일, 입주 청소, 빵공장, 빵가루 공장, 옷공장, 노래방, 포장공장, 식당일, 정육점, 공장 청소, 건설 현장 청소, 정육점, 모텔 청소, 화장품 케이스 조립,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간병, 찜질방 등등

돌봄과 코로나19로 인한 배제 3 :돌봄노동 부문의 실직, 고용 불안의 심화

[30대, 우즈베키스탄, 동포]

• 아이 둘을 키우며 육아도우미로 어린이집에서 근무.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집이 휴관을 반복하다 문을 닫으면서 실직.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으나, 코로나로 해고됨. 이후 남편은 본인 처지를 비관하며 해고 후 매일 술에 의존해 지냄.

[70대, 중국, 동포]

• 2018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해 건강을 회복한 후 생계를 위해 아이돌봄 도우미로 일을 했으나 코로나19로 해고됨. 코로 나19로 돌보던 집 아이 엄마가 일을 그만두면서 엄마 본인이 직 접 아이를 돌본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게 됨.

이주돌봄(간병)노동자의 현실

- "간병인으로 일하며 혼자 생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19로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내지 못하고있으며, 중국 국적을 가지고있어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힘듭니다." [60대, 중국, 동포]
- "10년동안 간병인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갑자기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월세와 건강보험료가 제일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60대, 중국, 동포]

Ⅲ. 이주여성과 돌봄 쟁점의 대안 모색

한국 '국적자' 중심의 복지 지원체계

- 사회보장이 기본적으로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영주 권자는 통상 복지 대상에 당연 포함되지만, 한국은 영주권자에 대한 고려도 거의 없다.
- 외국인은 '특별 사유' 필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 한국인과 '가족 ' 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 세대주 신청, 수급 원칙의 재난지원금 : 세대주 대부분은 남성. 외국인은 제도적으로 세대주가 될 수 없다. 결혼해서 '가족'이 되어도 남편을 중심으로 제도에 편입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 간병을 통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이주민(여성), 특히 동포 이주민 당사자를 위한 돌봄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 농어업 노동, 난민, 미등록 이주민, 취업비자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코로나 대책은 '검사'확대 이외에는 없다.

이야기를 이제부터 다시 풀어가자.

- 코로나19 이후 이주민/이주여성의 현실이 변하려면!
- 감염에 대한 적절한 예방/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
- 감염시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 각종 질환에 대한 취약함이 적극 보완되도록 건강권 보장
-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 철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기본적인 생계와 일자리에 대한 보장과 적절한 보호 장치 필요
- 노동환경의 방역과 보호는 필수며 기본이라는 인식 전환
- 안전한 가족관계 보장은 비내국인들에게 더 절실
- 사회보장체계에서 외국인/영주권자를 포괄하는 제도 마련

참고문헌

- 강민주. 2019.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공익과 인권> 19: 3-34.
- 문현아, 허오영숙. 2021. <코로나19시기 한국사회 이주여성의 삶을 살펴보다1: 코로나19 시대에 드러난 이주민 차별의 실태>.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 이주민과 함께. 2020.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20. World Migration Report 2020. UN.
- Guadagno, Lorenzo. 2020. Migrants and the COVID-19 pandemic: An initial analysis. *Migration Research Series* No. 6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추가 질문/제안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mysyrius@snu.ac.kr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BUILDING A CARE ECONOMY: FROM COVID-19 RESPONSE TO RECOVERY

세션 5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영국의 돌봄경제 구축을 향한 노력과 전망

기조발표

다이앤 엘슨 영국 에섹스대학교 명예교수 / 전 여성예산단체 대표

SESSION 5 CREATING A CARING ECONOMY FOR POST-COVID RECOVERY IN THE UK

Keynote speech

Diane Elson Emeritus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Essex /

Former Chair, Women's Budget Group



WHAT IS A CARING ECONOMY?

- It prioritises care of one another and the environment so as to promote human wellbeing
- Everyone gives and receives care on the basis of their capacities and needs
- Everyone has time to care, as well as time free from care
- Paid care work is revalued and better rewarded
- A duty of care is prioritised by businesses of all kinds, by public agencies of all kinds and by al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community groups
- Requires changes in economic policy and business practices
- See Commission on a Gender Equal Economy, 2020, Creating a Caring Economy, London

https://wbg.org.uk/wp-content/uploads/2020/10/WBG-Report-v10.pdf

EIGHT STEPS TO CREATE A CARING ECONOMY

- 1. Re-envision what we mean by 'the economy'
- 2. Invest in social as well as physical infrastructure
- 3. Transform the worlds of paid and unpaid work
- 4. Invest in a caring social security system
- 5. Transform taxation to make it more progressive
- 6. Focus macroeconomic policy on building a caring economy
- 7. Develop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ternational trade system
- 8. Transform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o finance caring economies

STRUCTURE OF PRESENTATION

- Due to limited time, presentation will focus on Steps 1 and 2
- Step 1 Re-envision the Economy
- Step 2 Invest in Social as well as Physical Infrastructure
- I will relate Creating a Caring Economy to Impact of Covid and to a Post-Covid Recovery that enhances productive capacity on a sustainable basis, depleting neither human nor natural resources
- I will provide examples from the UK that have wider significance for other economies and will raise issues to consider in South Korea

CARE AND COVID IN UK

- Covid intensified care needs and revealed inequalities in care provision
- Shortage of paid care services underfunded and underpaid
- Increase in unpaid care in families- at expense of gender equality and wellbeing of carers
- Neglect of care in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unpaid care seen as costless, public spending on paid care as consumption, a cost not an investment
- Neglect of duty of care in business practices: too many firms treat people as
 disposable units of human capital e. g. through zero hours contracts, lack of sick
 leave, lack of care leave, failure to provide Covid-secure working environment

STEP1 RE-ENVISION THE ECONOMY

Look beyond the market Recognise unpaid work Measure wellbeing



UNPAID CARE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 · Unpaid care services are not counted as part of GNP, paid care services are
- · UK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collects time use data that include both paid and unpaid activities
- A shadow wage/price can be put on unpaid care (and other unpaid household production) to create a Satellite Account, as is done by UK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 In 2016, unpaid household production, including adult and childcare, household housing services, nutrition, clothing and laundry, transport and volunteering, equivalent to 63.1% UK GDP
- https://www.ons.gov.uk/economy/nationalaccounts/satelliteaccounts/articles/householdsatelliteaccounts/2015and2016estimates
- But in economic decision making, unpaid care is treated as costless: increases in unpaid care not factored into decision making but can reduce wellbeing, productivity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CREASE IN UNPAID SOCIAL CARE FOR ADULTS IN UK DURING PANDEMIC

- Since onset of Covid-19 numbers of unpaid carers increased by 4.5 million to over 13.6 million
- Increase driven by concerns about safety of paid care services, reduction of local services, increased need for care
- 58% of unpaid carers women, nearly 3 million of whom combine paid work with care
- Online survey of almost 5900 carers in October 2020 found nearly two thirds had no respite from their caring responsibilities; three quarters reported feeling exhausted and worn out; two thirds said that their mental health has worsened
- 11% of carers reported they had reduced their hours of paid work to manage their caring responsibilities, and 9% had given up paid work because of caring

Source: UK Carers (2020) Caring Behind Closed Door http://www.carersuk.org

GENDER INEQUALITY IN UNPAID CHILDCARE AND DOMESTIC WORK IN UK DURING THE PANDEMIC

- 67% of women and 52% of men home-schooled a school age child in late Jan/early Feb 2021
- In April and early May 2020, 34% of women reported that their well-being was negatively
 affected by home-schooling a school age child compared with only 20% of men
- By early Feb 2021, it was taking a greater toll on both women (53%) and men (45%)
- In Sept and Oct 2020, women spent 99% more time on unpaid childcare than men and 64% more time on unpaid household work than men
-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conditionsanddiseases/a rticles/coronaviruscovid19andthedifferenteffectsonmenandwomenintheukmarch2020tofebruary2021/2 021-03-10

RETHINK PRODUCTIVITY FOR A CARING ECONOMY

- Reducing wage costs per unit of output is not the same as increasing productivity
- It may sacrifice quality of output- especially in services; if the time allowed to deliver services to frail people is reduced, quality of service suffers
- It may sacrifice wellbeing of workers, intensifying work, leading to more mistakes on the job, higher labour turnover, higher rates of absence for ill health, human depletion
- It may transfer costs to the unpaid economy: example, day surgery reduces costs of hospitals but requires unpaid care for patient on discharge
- Productivity must be measured to take account of QUALITY of output and of ALL the work associated with this output and the WELLBEING of ALL the workers

MEASURE WELLBEING NOT JUST GNP

- Economic growth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wellbeing, for many it reduces well being
- We must examine what is being produced, how it is being produced and the impacts on equality, wellbeing and sustainability
- OECD (2020) Beyond Growth: Towards a New Economic Approach
- For wellbeing indicators, see OECD (2020)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 UK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2019) Measures of National Well-being Dashboard
- Some governments are adopting a wellbeing approach: e.g. Scotland, Wales, New Zealand, Iceland, Finland. see Wellbeing Economy Alliance (2020) Our work: Wellbeing Economy Governments https://wellbeingeconomy.org/wego

STEP2 INVEST IN SOCI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 Invest in staff and activities as well as in equipment, buildings, roads, railways, ports
- Recognise public services as social infrastructure
- Example: investment in care services

SOCIAL CARE SERVICES IN UK - UNDERFUNDED AND UNDERPAID

- Mainly supplied by not-for -profit and private companies, providing residential care facilities and domiciliary care visits, for adults that need care because of disabilities and old age
- · Reliant on government funding but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this has been subject to deep cuts
- October 2020, Parliamentary Committee reported that a substantial increase in annual funding is required to keep pace with population aging
- Average wage for social care workers is just 2% above the National Minimum Wage
- Turnover rate of 40% for care workers in 2018/19
- Prior to the pandemic, in a workforce of 1.2 million there were 122,000 social care staff vacancies
- 650,000 to 950,000 new adult social care staff needed by 2035

House of Commons Library (2020) The health and social care workforce gap (https://bit.ly/3qQBSBb)

CHILD CARE SERVICES IN UK - UNDERFUNDED AND UNDERPAID

- Mainly supplied by non-for-profit and private companies but reliant on government funding as well as fees paid by parents
- In 2019, cost of providing early years education and care for under-twos was underfunded by 37%, for three- and four-year-olds underfunded by 20%
- Average wage in 2020 was £7.42 an hour compared to National Minimum Wage of £8.72 an hour
- 37% of early years workers leave within their first two years, and 15% within the first 12 months
- COVID has resulted in fall in enrolment because of health concerns, the loss of income means many providers are at high risk of closure
- Source: Women's Budget Group, 2021, Childcare, gender and Covid-19. Pre Budget Briefing
- https://wbg.org.uk/analysis/uk-policy-briefings/childcare-gender-and-covid-19-2/

PUBLIC SPENDING ON CARE SERVICES: CONSUMPTION OR INVESTMENT?

- Economists treat public spending on care services as consumption that satisfies current needs, not as investment that sustains and expands productive capacity of economy
- Public spending on *physic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railways and ports, is recognised as investment because it yields returns in the future and expands productive capacity
- Care services should be recognised as social infrastructure, that also yields returns in the future, expanding productive capacity, not only by enhancing capacities of children, but also by sustaining the capacities and wellbeing of people providing unpaid care, enabling them to balance paid and unpaid work without exhaustion, and by sustaining an intergenerational social contract
- For more discussion, see James Heintz (2019) 'Public Investments and Human Investments: Rethinking Macroeconomic Relationships from a Gender Perspective' in D. Elson and A. Seth (eds) Gender Equality and Inclusive Growth, UN Women http://www.unwomen.org/en/digital-library/publications/2019/01/gender-equality-and-inclusive-growth

EMPLOYMENT IMPACT OF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 J. De Henau & S. Himmelweit (2021) 'A Care-Led Recovery From Covid-19: Investing in High-Quality Care to Stimulate And Rebalance the Economy', Feminist Economics, 27 (1-2)
- Using input—output analysis, across selected European countries, and USA, the simulation study shows a care-led recovery has superior employment outcomes to investment in construction, even if wages and hours of care workers are the same as those of construction workers
- Direct effects in care sector, indirect effects in sectors supplying care sector, induced effects economy wide via additional household spending
- Covers child daycare and adult long-term care, in residential settings and at home

EMPLOYMENT IMPACT OF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RESULTS

- For UK, at current wages, investing equivalent amounts, investment in care would generate 2.7 times as many jobs as investment in construction, 6.3 times as many for women and 1.1 times as many for men
- For UK, if wages in care match those in construction, it would generate 1.6 times as many jobs, 3.9 times for women, and 0.8 times as many for men
- In UK 36% of gross spending on care is recouped from additional tax revenue generated and 22% of gross spending on construction
- · In addition, investment in care generates less pollution than investment in construction

PRODUCTIVITY IMPACT OF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 Ö. Onaran, C. Oyvat, & E. Fotopoulou (2019) 'The effects of income, gender and wealth inequality and economic policies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the UK', Greenwich Papers in Political Economy, No 71
- 3 sector model with social sector (health, social care, education, child care), rest of market economy, and unpaid care sector and three types of factors of production -male and female labour, and capital
- Structuralist model with involuntary unemployment and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 Econometric estimation of productivity changes in the medium-run as an outcome of changes in wages, public and private expenditure and unpaid care for the period of 1970-2015

PRODUCTIVITY IMPACT OF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RESULTS

- Higher public investment in soci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 is likely to increase labour productivity (output per hour) in the medium term (5 years or more) directly and through induced effects of increases in household expenditure on care and reductions in unpaid household care
- Estimates of impact, holding wages constant:
- 1% point increase in ratio of public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to GDP increases productivity in the rest of the economy by 3.3% percent in the medium run
- 1%-point increase in ratio of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GDP increases productivity in rest of economy by 0.5% in the medium run

BUILD BACK BETTER? CREATE A CARING ECONOMY

- President Biden has got the message. His \$2 trillion American Jobs plan will invest in social infrastructure as well as physical infrastructure
- In UK the Women's Budget Group, a network including policy advocates in NGOs and trade unions, academics, and women's organizations is arguing for a care-led recovery with support from some parliamentarians
- In Canada a campaign for a care-led recovery is being organized by care-givers, community leaders, economists, academics and policy advocates
- Creating a Caring Economy would Build Forward in ways that would also equip us to be better prepared for future health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ISSUES TO CONSIDER IN SOUTH KOREA

- Re-envision the economy
- Is unpaid care taken into account in economic policy making? Or are costs transferred to the unpaid economy?
- Is productivity defined in ways that take into account quality of outputs and well-being of workers?
- Are well-being indicators used to assess the economy, as well as GDP?
- Invest in social as well as physical infrastructure
- Is public spending on care considered to be consumption or investment?
- Is analysis conducted of the impact of investment in care on employment and productivity compared to investment in other sectors, such as construction?
- Will South Korea invest in a care-led recovery?





코로나19와 돌봄 위기 극복을 위한 돌봄경제 수립 및 실천 방안

BUILDING A CARE ECONOMY: FROM COVID-19 RESPONSE TO RECOVERY

세션 6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돌봄의 의미

기조발표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SESSION 6 THE IMPORTANCE OF CARE IN ADVANCING JUSTICE

Keynote speech

Sang-Hyun Song

President, Korean Committee for UNICEF / Former Presid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Professor Emeritus, SNU School of Law



3 June 2021

저출산·고령화,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ENVISIONING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FOR THE POST-PANDEMIC FUTURE

개회식

축사

최정우 포스코 회장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CWE-GAM 공동 연구책임자

OPENING

Special remarks

Jeongwoo Choi CEO, POSCO

Maria Floro Professor of Economics, American University

Co-Principal Investigator, Care Work and the Economy Project

2021 국제 돌봄정책 컨퍼런스 CEO 축사(案)

「2021 국제 돌봄정책 컨퍼런스」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스코 회장 최정우입니다.

'코로나 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 사회로의 전환'을 테마로 열리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글로벌 사회가 안고 있는 돌봄의 필요성과 대책 강구의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동참을 유도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로 생각됩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동향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1990년 3.2명에서 2020년 2.5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성평등(Gender Equality)이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포함되어 있지만, 가사와 자녀에 대한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세계 65세 이상 고령자수는 2020년 7억명에서 2050년 15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을 겪고 있는 고령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인구에 대한 돌봄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러한 육아 부담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 중가에 대응하여 돌봄경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환경처럼 돌봄 결손이 심각해지면 대책 마련은 더욱 어렵습니다.

1/3

2021 국제 돌봄정책 컨퍼런스 CEO 축사(案)

한국사회도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함께 겪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에서 2020년 0.84명까지 하락하는 등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만 봐도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간 한국 사회는 정부의 주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기업을 포함한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 가능인구가 줄고, 그로 인한 소비와 시장의 위축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포스코가 저출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스코는 2018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탄소중립, 동반성장, 벤처육성 등과 함께 출산친화를 기업시민 5대 브랜드로 설정하여 기업차원의 롤 모델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Life Cycle에 맞춰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참고가 될만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직원들의 출산 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작년 7월에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한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경력 관리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직원들이 휴직을 하지 않고도 재택근무를 통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협력사와 공급사의 직원 자녀들도 양질의 돌봄 시설을 함께 이용토록 작년에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중소기업과 지역 사회의 돌봄공백 완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3

2021 국제 돌봄정책 컨퍼런스 CEO 축사(案)

또한, 저출산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국인구학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2020 저출산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민관학이 함께 하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의 場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그리고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한국 이주 여성들에게 육아 돌보미와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보장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하는 등 출산친화 정책화를 위한 공동 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과 제도가 훌륭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참여가 수반되지 않으면 돌봄과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포스코는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여, Collective Impact를 창출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시해주실 통찰력과 해법이 저희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1 국제 돌봄정책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러한 의미있는 행사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한국인구학회 및 아메리칸대학교, 오픈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에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





저출산·고령화,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ENVISIONING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FOR THE POST-PANDEMIC FUTURE

세션 1 돌봄경제,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

기조발표

아니타 바티아 유엔여성기구 부총재

사회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센터장

패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엘리사 브라운스타인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토 펭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 글로벌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카비타 람다스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여성권익프로그램 디렉터

SESSION 1 CONNECTING CARE ECONOMY,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FUTURE

Keynote speech

Anita Bhatia Deputy Executive Director, UN Women /

Former Director, Development Partner Relations, World Bank

Moderator

Ki-Soo Eun Professor and Director of CTMS,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note panel

Elissa Braunstein Professor of Economics, Colorado Stat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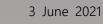
Jiyeun Cha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Ito Peng Professor of Sociology and Public Policy and Director of Centre for

Global Social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Kavita Ramdas Director, Women's Rights Program, Open Society Foundations

Sung-Sik Shin Journalist, JoongAng Daily





저출산·고령화,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ENVISIONING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FOR THE POST-PANDEMIC FUTURE

세션 2 젠더평등과 코로나19 이후의 돌봄사회

기조발표

오 치아이 에미코 일본 교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아시아공간연구센터 센터장

SESSION 2 IMAGINING THE TRANSFORMATION TOWARDS A GENDER-EQUAL, CARING SOCIETY

Keynote speech

Emiko Ochiai Professor of Sociology and Director of Asian Research Center for

Intimate & Public Spheres, Kyoto University

Gender Issues and the Care Crisis as Revealed by COVID-19

OCHIAI Emiko Kyoto University

Results of the Working From Home Survey

State policies and changes to people's lives in Japan

- March 2: All schools closed with the near-unilateral decree of the prime minister.
- April 7: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 "Stay-at-home" became a national slogan.
- Supermarkets and high streets were all much busier than normal. Criticism from the governors.
- May 25: State of Emergency lif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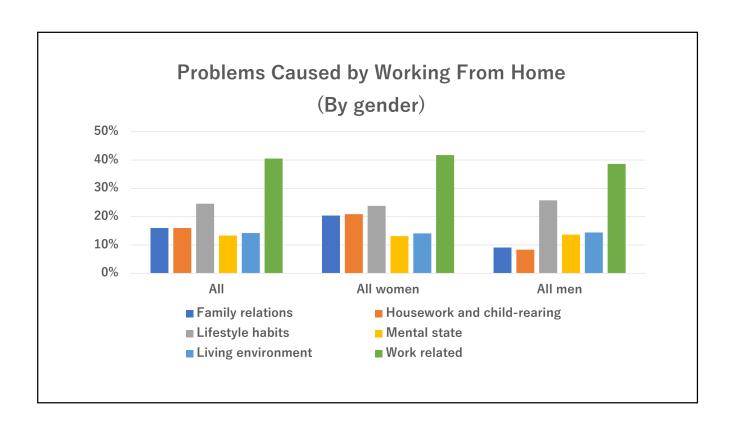
This society, and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couldn't see some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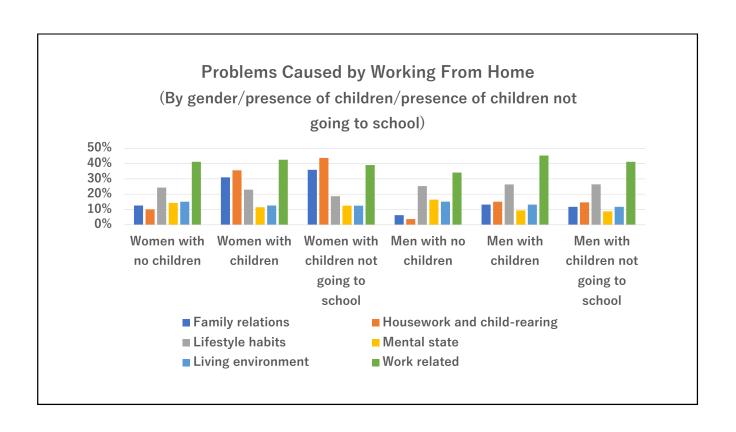
"Stay-at-hom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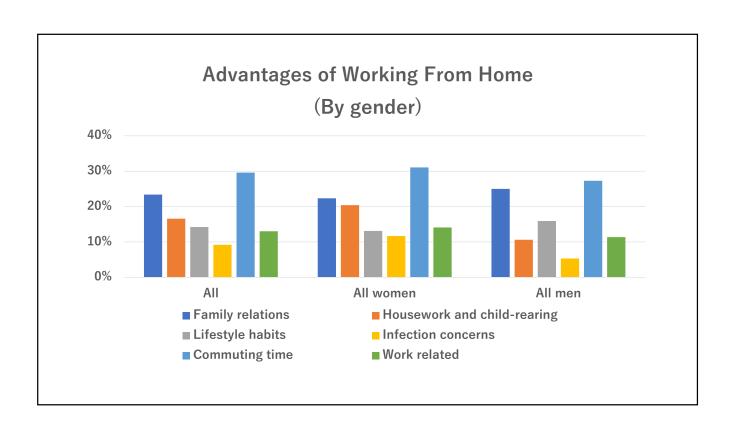
- A web-based survey between April 8th and 15th
- By Emiko Ochiai and Nanami Suzuki (Ochanomizu Univ.)
- Targeting people who had experience, either personal or of member of their household, with working from home due to the effect of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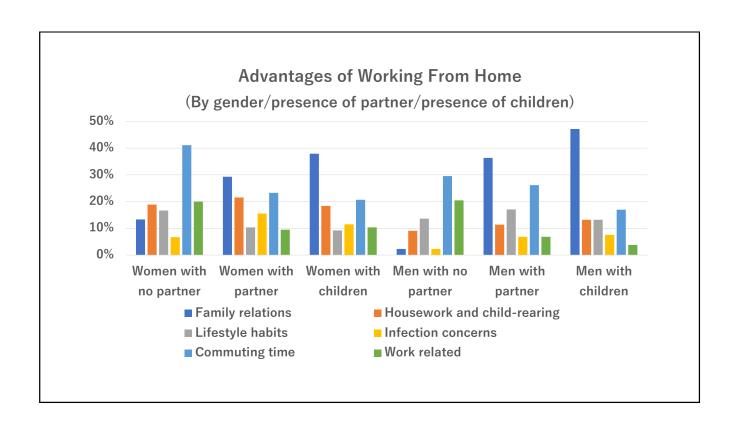
"Stay-at-hom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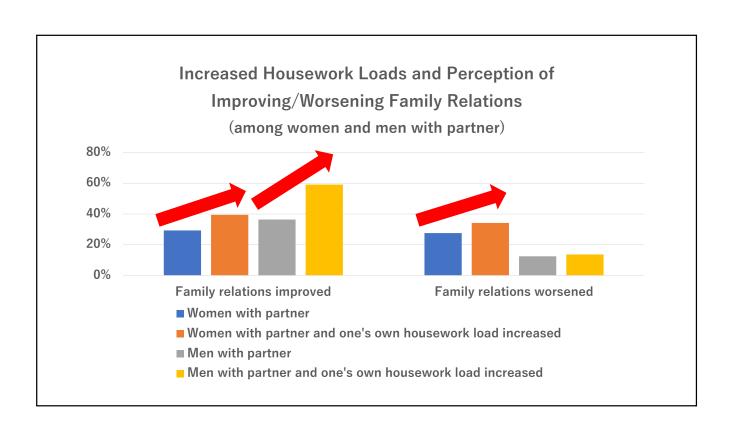
- Received responses from 340 people
- •Female:61%, Male:39%
- Tokyo Area 78%, Kansai 10%
- •102 (30%) people had children who had to stay home from school (or kindergarten/daycare).











Increased Housework Loads and Family Relations

- One in three women and one of five men staying at home due to the coronavirus responded that their housework load had increased.
- The circuit that connects an increase in the housework load and improving or worsening family relations is not a simple one.



Challenges for the "new norm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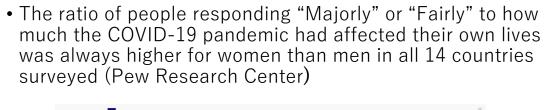
- Working from home increases the time spent with the family, and is an opportunity to take time and effort with housework as well, greatly improving family relationships.
- Housework and care are labour, but also a part of life itself.
 They are different from jobs where the less time you have to spend, the better.
- It is clear that there are numerous issues left to making working from home, which has the potential for increasing people's happiness, into the "new normal."
- Social care and work-life ba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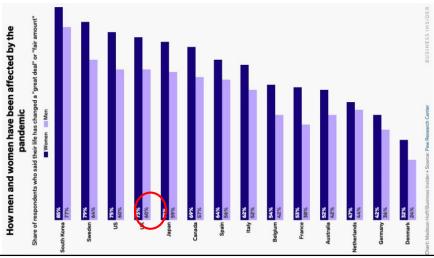
COVID-19 as a Gender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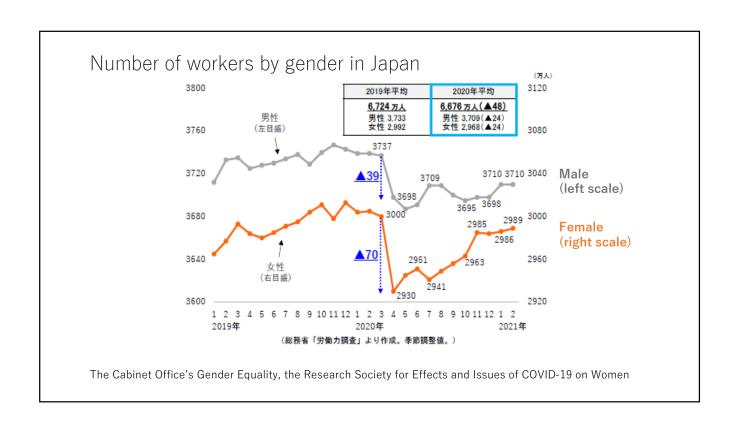
The discovery of gender issues in a range of fields

Various aspects of female lives affected by COVID-19

- It became clear that the coronavirus pandemic was seriously affecting a range of aspects of female lives, not just housework and care, in many countries.
- Employment
- Income
- Domestic Violence
- Suic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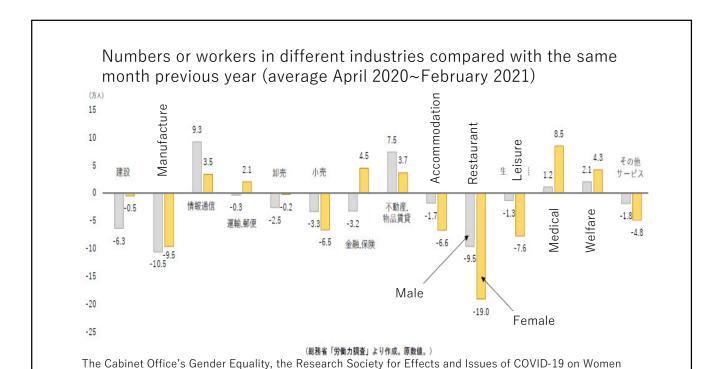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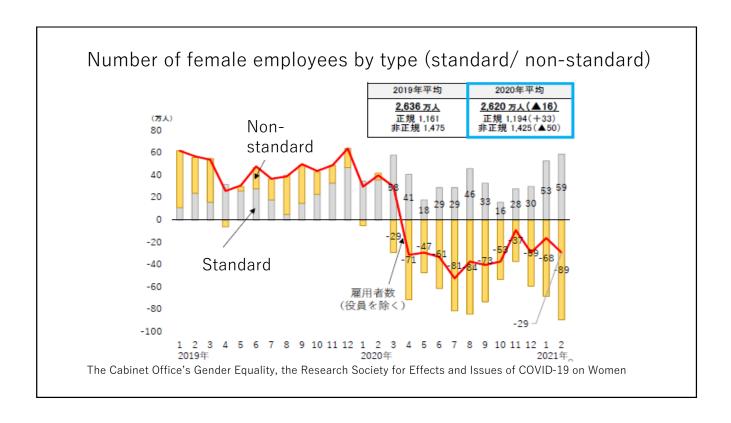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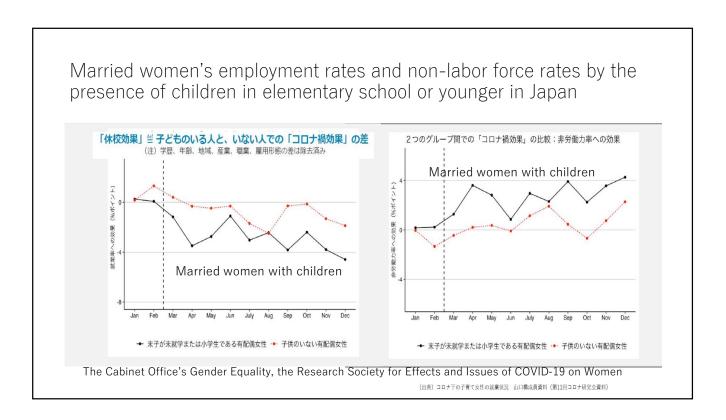
Considerable impacts on women's employment



- The impact on employment is harsher for women. The drop in the number of workers was larger and the recovery was later.
- Three reasons behind these gaps;
- (1) Type of industry: Many industries where a lot of women work, such as restaurants, lifestyle and leisure, and accommodation, have been directed affected.
- *However, in industries related to medical treatment and welfare, another area where a lot of women work,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people hired.
- (2) Non-standard employment, which covers a lot of women.
- (3) The effect of increased housework and care bu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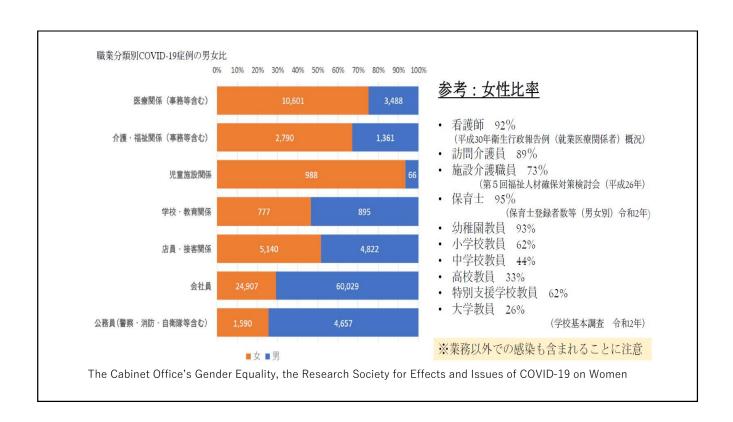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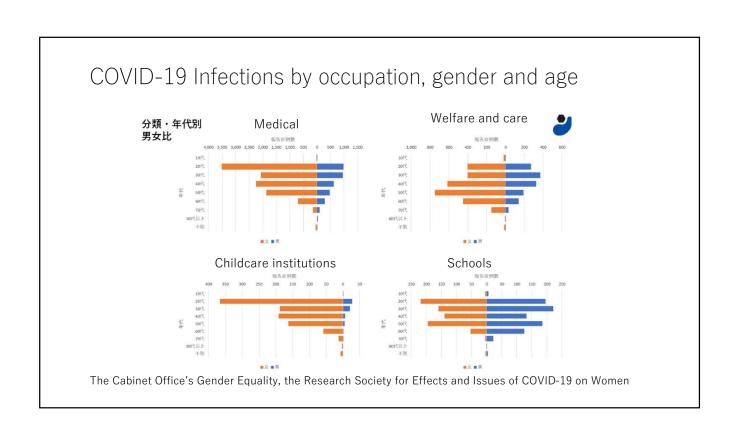
The drops in women's employment rate

- The trend for married women with children to leave the labour force (not looking for work)
- In contrast to this, the unemployment rates for single mothers and single women has increased greatly.
- A survey (conducted June 2020, valid responses from 1,816 people) by Single Mothers Forum, an NPO, showed that 70% of single mothers were affected in terms of their own employment or income. "I am the sole care-giver" so "I was forced to retreat from the workplace due to emergency school closures." "About 30% quit or retired 'voluntarily' from concerns that their catching coronavirus would mean they would be unable to care for their families." (Akaishi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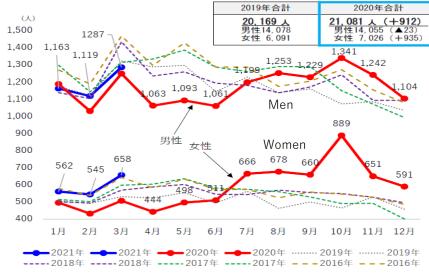
High risks of infection for the people hired by medical treatment/welfare-related industries

- There is a high ratio of women taking on face-to-face care roles, who are referred to as "essential workers": 92% of nurses, 89% of home visit caregivers, 73% of welfare facility workers, 95% of nursery school teachers, 93%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62% of primary school teachers are women.
- Looking at the distribution by sex and age of infected persons by occupation, there is a definite peak among women in their twenties working in medical or child welfare fields.
- Age distribution is different in care welfare work, with women in their 40s and 50s being the most infe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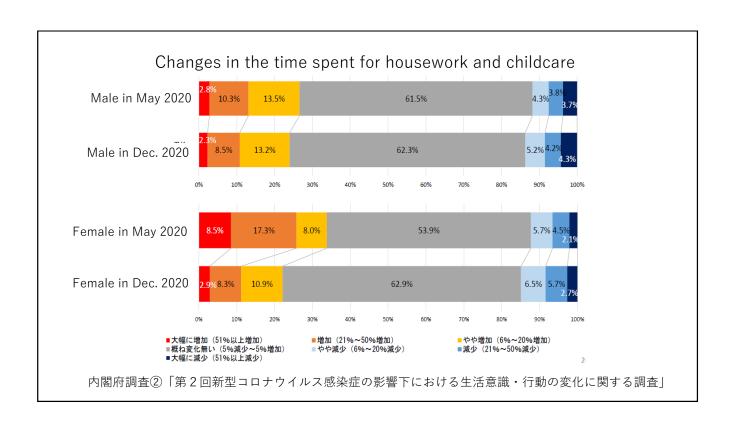
- "Housewives"
- "People living on pensions or employment insurance, etc."
- "High school students"
- the large increase in suicides among women living with some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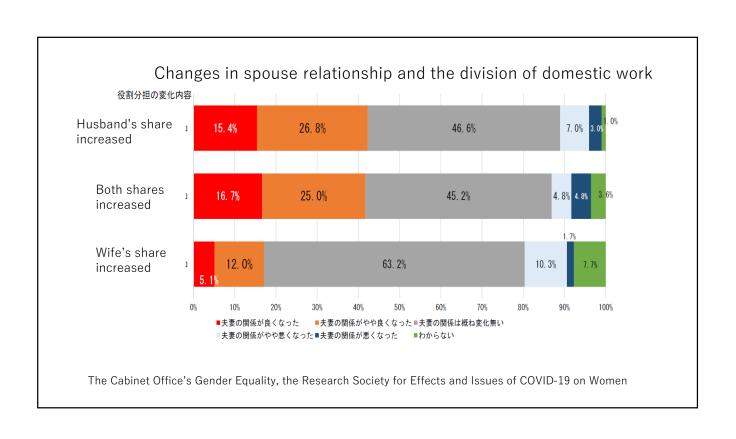
The Cabinet Office's Gender Equality, the Research Society for Effects and Issues of COVID-19 on Women

Reported DV 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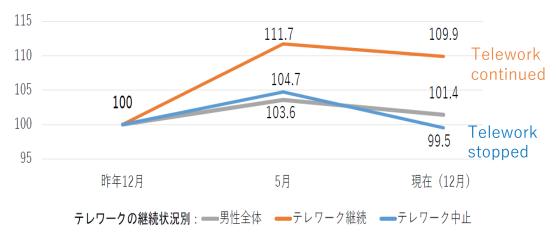
The number of consultations between April 2020 and February 2021 was about 1.5 times that of the previous year.







Telework and the increase in men's time spent for housework and childcare



Women as carers directly affected by the "intimacy disease"

- "Taking care of an individual's intimate needs/requirements in and outside the household" is called "intimate labour".
- While women do not occupy these roles in all human societies, this is a strong tendency in modern societies.
- The pandemic has meant people are refraining from getting these services from people outside the family, and thus the women in the family are required to provide these services.
- Women had to play the role of quasi-medical practitioner, protecting their families from infection.
- Re-familialization of care

The impact of intensification of care roles

(1)Intensification of care roles at home

- Women were forced into voluntary or involuntary unemployment or leave in order to take care of others.
- Women in non-standard jobs were used as the control valve for the economy.
- The employment system of this society, one predicated on the gender division of labour, merely functioned as expected.

(2)Intensification of care roles at work

• With few major improvements in their working condition

★The unreasonable fact that women are being affected precisely because they are caring for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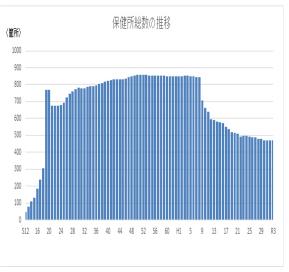


Gender Issues in Public Services and Public Labour

Impacts of administrative reforms on public services

-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reason PCR testing was so slow in Japan was because the public health centres were a bottleneck.
- The decline in infectious diseases lulled society overall,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was more focused on "efficiency".
- Neoliberal downsizing policies
- The impact of administrative reforms and the spread of COVID-19 is an important theme for future inves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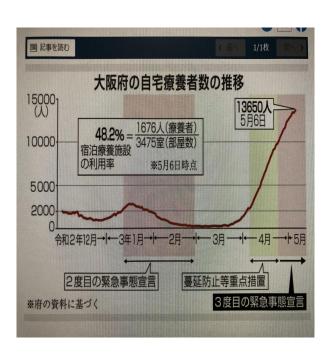
Decreasing number of public health centres





Osaka as a case

- The number of patients being treated at home as of 10th May 2021 was 14,504.
- The usage rate of accommodation-based recuperation facilities remains low, at 43.4% because the office work at hokenjo to assign people to these hotels cannot keep up with the expanding numbers of pati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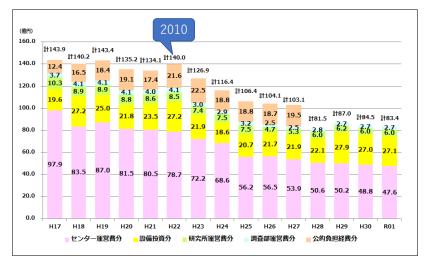


A personal experience of a patient in Osaka

- 16 April: Got a message from the city's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saying that today was the end of my recuperation period. Later, the food to help me in my recuperation period was finally delivered.
- In contrast to the efficient delivery in Ko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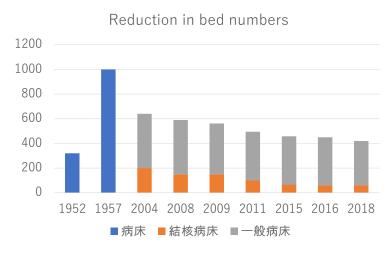


Reduction in the budget from Osaka City to the Osaka Prefectural Hospital Organization



Osaka Habikino Medical Center

• a specialist hospital focusing on respiratory diseases and infections established in 1952.



Public hospitals and medical institutions

- About 60% of medical institutions specified for treating infections are public hospitals.
- 73% of public hospitals and 85% of public medical institutions are able to accept COVID-19 patients, in contrast to 26% for private-sector medical institutions.
- This reduction in bed numbers in public hospitals and public medical institutions was not limited to Osaka. It is a part of the "reform" started in 2014.

Revealed inefficiency of austerity policies

- These administrative reforms were about increasing efficiency, which was the standard tactic worldwide since the 1990s with the rise in welfare budgets as populations aged.
- However, globally, this sort of downsizing was increasingly criticized as leading to recessions and fewer jobs, and in 2012, the IMF stated that these measures were a mistake.
- These administrative reforms aiming for increased efficiency actually led to increased inefficiency in public services to deal with the pandemic.

Public services relying on female nonstandard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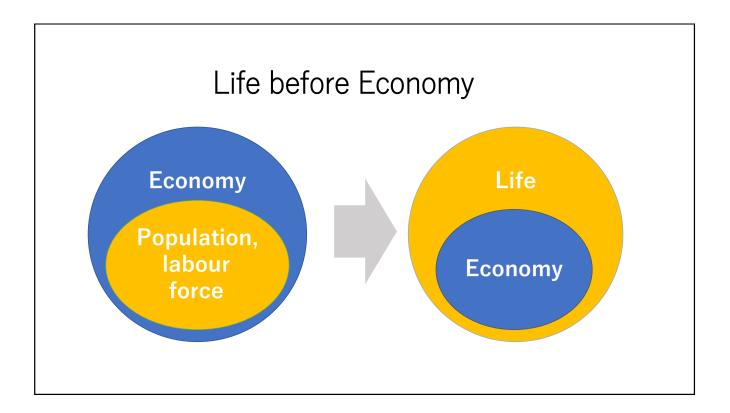
- About 40% of official work carried out by local authorities was actually done by non-standard workers.
- The proportions of non-standard workers by field are 95.0% for consumer and life consultations, 94.5% for child guidance counsellors, and 85.2% for counsellors for women. In these three areas, there are almost no permanent workers at all. The ratios continue with 72.0% for library workers, 65.1% for school lunch cooks, 65.1% for school janitors, and 53% for nursery school teachers. The ratio for nurses and deputy nurses is 21.4%, almost the same as the 23.1% for general office work. For case workers, it is 7.1% (Nozumi 2021).
- 77% of Fiscal Year Appointed Staff are female, and, if temporarily-appointed workers are added, the ratio of female non-permanent workers is 75% (Kanbayashi 2021).

Female non-standard workers providing support for those suffered from COVID-19

- We need to take another look at the fact that many of these public workers who supported those suffered from COVID-19 were women in non-standard positions.
- From the job-placement office staff who helped people who lost their jobs thanks to COVID-19 and the nursery school teachers and after-school childcare staff who maintained social care while exposing themselves to the risk of infection, to the counsellors for women who did their best to support women subjected to domestic violence, and the community centre workers who did their best to help old people maintain their muscle tone as opportunities for exercise diminished.

Society and Social Science That Embraces Life

Caring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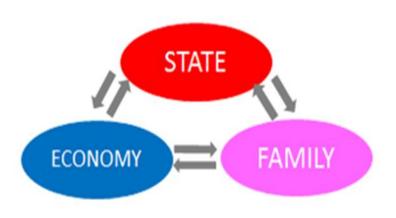
Caring Economy

The system of relations, institutions, and processes concerned with the production, consumption, distribution, and circula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support human life. (Sylvia Walby 2009)

"The concept of economy needs to be widened so as to include not only marketized activities, but also domestic labor and state welfare."

(Sylvia Walby 2009: 102)

Three sector model of social reproduction



References

- 落合恵美子・鈴木七海「COVID-19緊急事態宣言下における在 宅勤務の実態調査一家族およびジェンダーへの効果を中心に」 (鈴木七海と共著) 『京都社会学年報』
- •山谷清志・藤井誠一郎2021『地域を支えるエッセンシャル・ワーク』ぎょうせい
- Stuckler, David and Basu, Sanjay. 2013, *The Body Economic. Why Austerity Kills.* New York: Basic Books.





저출산·고령화,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ENVISIONING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FOR THE POST-PANDEMIC FUTURE

세션 3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19의 현재와 돌봄의 미래

사회

문현아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라운드 테이블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

조기현 전 청년불평등완화 대화기구 공동위원장 /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기획영상

강미정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공동설립인 활동가

김철수 애심간병인협회장

이현림 민주노총 공공운수 보육지부 초대지부장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SESSION 3 INFORMING THE CARE AGENDA IN SOUTH KOREA: VOICES FROM THE FIELD

Moderator

Hyuna Moon Senior Research Fellow, CTMS

Roundtable

Hye-Jin Byeon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Kyoung Min Yi Manager, Committee for Fair Labor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ulah Jeong Manager, Women's Labor Team, Womenlink

Gi-Hyun Jo Former Co-Chairman, Youth Inequality Council / Author of "The Narrative

of a Young Carer: Becoming a Father of My Father

Young Sug Heo Representativ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저출산·고령화,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ENVISIONING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FOR THE POST-PANDEMIC FUTURE

Special clip

Mi-Jung Kang & Activist, Political Mamas | Jeong-Duck Kim Activist, Political Mamas

Joo-Sung Kang Co-Founder and Activist, Caregiver Citizens' Solidarity / Former President,

Health Right Network

Chul-Soo Kim President, Aesim Association of Care Providers

Hyun Lim Lee First Chairperson, National Childcare Workers' Union

Ji Hyeon Jeon Secretary-General, National Union of Long-Term Care Workers



3 June 2021

저출산·고령화, 젠더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ENVISIONING GENDER EQUALITY AND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FOR THE POST-PANDEMIC FUTURE

폐회식

맺음말

루스 레빈 IDInsight 대표 / 전 휴렛재단 국제인구와개발 디렉터

이토 펭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 글로벌사회정책센터 센터장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센터장

CLOSING

Closing remarks

Ruth Levine CEO and Partner, IDinsight / Former Program Director of Global

Development and Population,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Ito Peng Professor of Sociology and Public Policy and Director of Centre for

Global Social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Ki-Soo Eun Professor and Director of CTMS,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신진연구자 특별 심포지움: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과 돌봄 사회

세션 1

사회

전지원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발표

주익현 광운대학교 연구교수

이은정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전소현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과정김은지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패널 마리아 플로로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CWE-GAM 공동 연구책임자

이토 펭 캐나다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 글로벌사회정책센터 터장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THE CARE ECONOMY IN KOREA:
BEYOND COVID-19 AND TOWARDS A SUSTAINABLE CARING SOCIETY

연사 / 참여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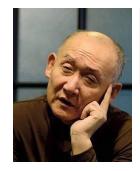
Speaker / Participant Profile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Mi-Jung, Kang** Activist, Political Mamas

2017년부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상근 활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미디어감시팀 팀장을 역임하고 2020년 10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미술을 전공했으나 독박육아를 하면서 '뭘 그려야 하지',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우울감을 겪다가 <정치하는 엄마들>을 알게 되었다. 한국 공동체와 사회로 시선을 넓히며 미술을 통한 표현력과 욕구를 되살려 캠페인 기획 및 실행, 단체행사 기획, 홍보물 제작 등 적극적으로 단체의 다양한 실무를 맡고 있다.

Mi-Jung Kang has been a full-time activist for the civic group, "Political Mamas" since 2017. In 2019, she served as a team leader for the media surveillance team and has been a co-representative since October 2020. She majored in art, but during her childcare, she became aware of "Political Mamas" while she was suffering from depression, worrying about "what to draw" and "what to express". She is actively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such as campaign planning and execution, group event planning, and producing PR materials, by expanding her gaze to Korean community and society and reviving expressiveness and desire through art.



강주성 간병(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설립인·활동가

Joo-Sung, Kang Co-Founder and activist, Caregiver Citizens' Solidarity / Former President, Health Right Network

1999년 백혈병 진단을 받아 투병하다 2001년 글리벡 환자비상대책위 대표를 맡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값 인하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02년 <한국백혈병환우회>를 창립해 대표를 맡았으며, 2003년에는 보건의료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창립해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07년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을 거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8년 (사)시민건강연구소 이사와 (재)국제보건의료재단 윤리인권경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한민국병원 사용설명서』(2007, 2015), 『내 인생의 첫 수업』(2008) 등이 있다.

In 1999, Joo-Sung Kang was diagnosed with leukemia. In 2001, he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Gleevec Patient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and successfully led the Gleevec drug price cut campaign for leukemia treatment. In 2002, he founded "Korean Leukemia Society" and in 2003 he founded the Health and Medical Citizens' Network "Health Right Network" and served as co-representative.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in 2006 and a member of the Board of Appeals f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2007. He is a director of the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and a member of the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KOFIH) 's Ethics and Human Rights Management Committee in 2018 and has created and worked on the Citizens' Solidarity for Solving Care Problems in 2020. His major books include The Guide to the Use of Korean Hospitals (2007, 2015) and The First Class of My Life (2008).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Bongoh, Kye Professor of Sociology, Kookmin University

UCLA 사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대학교 인구학 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관심 연구 분야는 사회불평등과 인구 행동의 관계다. 주요 연구논문은 Social Science Research,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Demographic Research, and the History of the Family 등의 학술지에 출간되었다. 현재 국민대 사회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Bongoh Ky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sociology at Kookmin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was Frank H.T.Rhodes postdoctoral fellow at Cornell University. His research focuses on the intersection between social stratification and demography. His works have been published in peer-reviewed journals such as Social Science Research,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Demographic Research, and the History of the Family.



그라운, 캐런 세계은행 글로벌 젠더 디렉터
Caren Grown Global Director for Gender, World Bank

세계은행그룹의 글로벌 젠더 디렉터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USAID의 젠더평등과 여성 세력화의 선임 젠더 고문을 맡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아메리칸 대학교의 '경제학에서의 젠더분석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이자 유엔 산하 UNU-WIDER에서 '원조 효과와 젠더 평등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그 외 미국 내 많은 주요 경제 연구소와 기관에서 디렉터로 일했다.

Senior Director for Gender at the World Bank Group, Caren Grown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an expert on gender and development. Before joining the Bank Group in 2014, she was Economist-in-Residence and Co-Director of the Program on Gender Analysis in Economics at American University. From 2013-2014, she led the UNU-WIDER program on aid effectiveness and gender equality, and from 2011-2013 she served as Senior Gender Adviser and Acting Senior Coordinator for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t USAID. Among her previous positions, Dr. Grown has been Senior Scholar and Co-Director of the Gender Equality and Economy Program at the Levy Economics Institute at Bard College, Director of the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Governance team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and Senior Program Officer at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Young Ock, Kim Emeritus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0년에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랫동안 한국여성경제학회이사로 활동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동시장, 여성경제활동 참여,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분석 및 관련 정책개발이다. 2003~4년에는 여성가족부 정책보좌관으로 참여하였고 2005년에는 미국 미시간대학의 교환교수로 있었다.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도역임했으며 2012~2015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Young Ock Kim is an emeritus fellow of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She earned her Ph.D. in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in 2000 and served a long time as a board member of the Korean Women Economists Association.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labor market, and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From 2003 to 2004 she joined the Government on a full-time basis as a policy adviser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was a visiting scholar to IRWG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in 2005. She also worked as an adjunct professor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oung Ock Kim has developed a strong partnership both with GOs and NGOs. She is currently a commission member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Minimum Wage Council while networking with various women's groups.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Jeong-Duck, Kim** Activist, Political Mamas

201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2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전국에서 교사들의 성폭력이 가장 많았던 지역 관할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에 대해 투명하게 알 권리와 적극적인 행정권력 감시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꺾고 승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스쿨미투무료법률지원을시작하며 '스쿨미투전국지도 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도 만들었다. 현재는 당사자이자 양육자, 시민으로서 아동학대 해결 및 학교성폭력 고발 운동에 깊이 연대하며활동하고 있다.

From 2019 to March 2021, she was the 2nd co-president of the civic group "Political Mamas". In 2018,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hich is the regional jurisdiction where teachers' sexual violence was the most common, filed an "administrative lawsuit to disclose information on school MeToo processing". In December 2020, she was awarded the appeal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 recognition of the right to know transparently about the handling of school sexual violence cases and the need for active administrative power monitoring. Initiating free legal support for school MeToo, she also created "School MeToo National Map 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Currently, she is a caregiver, and citizen, deeply cooperating with the campaign to resolve child abuse and accuse school sexual violence.



김철수 애심간병인협회 회장 **Chul-Soo, Kim** President, Aesim Association of Care Providers

2012년 한국으로 입국해 간병업체 간병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 중국의 연변 재정간부학교 회계분야를 전공하고 1993년부터 연변 피부병방치원 계획재무과에서 일했다. 그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99년부터 일본 동경 요한일본어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쳤다. 2004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 연변 천운보건대약방 경리로 일을 하다가 다시한국으로 이주했다. 현재 <애심간병인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Chul-Soo Kim entered Korea in 2012 and began working as a caregiver for a nursing company. Since 1989, he has majored in accounting at Yanbian Financial Officer School in China and has worked in the finance department of Yanbian Dermatological Disorders since 1993. He then moved to Japan and taught Chinese at the Japanese School in Tokyo, Japan since 1999. He returned to China in 2004 and worked as a chief accountant for the Yanbian Chunwoon Health Center and then moved back to Korea. He is currently chairman of the Federation of Affectionate Caregivers.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Hyun Mee, Kim Professor of Cultural Anthropology, Yonsei University

현재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다. 주요 연구분야는 젠더의 정치경제학, 글로벌 이주, 에코페미니즘이다. 주요 저서로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2005),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난다: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기』(2014). 『페미니스트 라이프스타일』(2021) 등이 있으며, Multiculturalism in East Asia: A transnational exploration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을 공동 편집했다.

Hyun Mee Kim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ultural Anthropology at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he political economy of gender, globalization, and migration, and eco-feminism. She is the author of Cultural Translation in a Global Era (2005, in Korean) and We always leave home: Becoming migrants in South Korea (2014, in Korean), and Feminist Lifestyle (2021 in Korean). She also co-edited Multiculturalism in East Asia: A transnational exploration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with Koichi Iwabuchi and Hsiao-Chuan Hsia, 2016).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Sang-Ho, Nam Emeritus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현재 대한민국 세종시에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다. 부산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1983), 미국 뉴욕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1988),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학교에서 연구원, 한국은행 사회경제분석부의 연구 디렉터,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분석부의 디렉터, 서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워싱턴주 생태부 경제학자, 워싱턴대학교병원 박사전 연구원, KDI 의 거시경제분석팀의 연구 조교로 근무했다. 주 연구 관심 분야는 공공정책과 소득분배의 연산일반균형 분석(CGE), 경기순환분석이다. 경기순환분석과 CGE모델링 관련한 몇몇의 저서와 논문을 발간했다. 현재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공공정책학회의 이사회에 속해있다.

Dr. Sang-Ho Nam is an (Emeritus)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in Sejong, South Korea. He earned his B.A. in Economics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1983), M.A. in Economics fro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USA,1988), and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USA, 1993). He served as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Director of the Socio-Economic Analysis Division at the Bank of Korea, Research Director of the Macroeconomic Analysis Divi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of Budget Office, Associate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Seowon University, Economist at the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Pre-Doctoral Researcher for the University Hospital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and Research Assistant for the Macroeconomic Analysis Team 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His research interest is in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analysis of public policy and/or income distribution, and the business cycle analysis. Dr. Nam has published several books and papers for the business cycle analysis and the CGE modeling. He is in the Board of Director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KAPF), and of the Korea Association of Public Policy (KAPP).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Nam Hee, Do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세대학교에서 아동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아동 발달 관련 창의성, 생활시간, 특히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이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 직장어린이집, 종단연구 및 보육 정책 등이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식약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송파구와 세종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아동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물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2019),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한국 아동 삶의 질 지표 개발 및 DB 구축 방안연구』(2019-2020), 『유아 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연구』(2018) 등이 있다.

Nam-hee Do is a research fellow at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Dr. Do obtained her B.A. in Psychology from Korea University, M.A. in Child Education from Southern Illinois University(also finished doctoral

course), and Ph.D. in Child & Family Studies from Yonsei University. Dr. Do served as a lecturer at numerous universities, including Yonsei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and more. She also served as a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at Hanyang Institute for Woman for two years, and since 2011, Dr. Do has served as a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Dr. Do's expertise and research interests include longitudinal studies on Korean Childre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hildren's happiness, childrearing environment, etc. She published numerous journal articles, including, "Determining the relationship of children's socioeconomic background with vocabulary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Korean children at 3 and 7 years of age," "A study on time use typology of 6-year-old infants," "The impact of expected child-rearing expenses on childbirth based on the matching of two Korean panel data." and more. Her recent research projects are 'Plans to Further Safe Childcare Education Environments: Improvement Measures and Current Safety Management Status of Kindergarten and Childcare Centers,'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Meals and Snacks Provided by Kindergartens and Childcare Centers,' and more.



도하워, 그레첸 미국 UC버클리대학교 펠로우

Gretchen Donehower Academic Specialist and Research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현재 UC 버클리대학교의 펠로우다. 버클리대학교에서 60개국의 남성, 여성, 소년, 소녀들이 생산, 소비, 이체, 저축하는 경제 자원을 추산하는 '여성의 노동 총계'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버클리대학교의 경제와 고령화 인구 센터의 연구자이자 하와이 동서센터의 겸임 펠로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연구 주제는 국민이전계정 분석으로, 특히 경제활동에서 연령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는 것이다. 버클리대학교에서 통계학으로 석사를, 인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Gretchen Donehower leads the Counting Women's Work projec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 global research project that has teams in 60 countries tracking how men, women, girls, and boys produce, consume, transfer, and save economic resources—including with a new tool developed to track this during the coronavirus. The project adds a gender perspective to economic analysis by disaggregating National Transfer Accounts estimates by sex and including the value of unpaid care services and housework, overlooked by most economic monitoring systems. Donehower is also a Researcher at the Center on the Economics and Demography of Aging at UC Berkeley and an Adjunct Fellow of the East West Center, University of Hawaii. Her current research projects include 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ccounts.org) which is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age dimension of economic activity. She has a BA in economics and mathematics from Yale University, and an MA in statistics and a PhD in demography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람다스, 카비타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여성권익프로그램 디렉터 **Kavita Ramdas** Director, Women's Rights Program, Open Society Foundations

현재 오픈소사이어티재단 여성권익프로그램 디렉터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젠더 평등과 정의의 권익 옹호 활동가다. <여성을 위한 글로벌 펀드>의 전임 대표를 역임하면서 페미니스트 사회공헌활동의 주요 활동가로 주목받기 시작해, 스탠포드 대학교의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의 사회경영 프로그램을 맡았고, 포드 재단에서 선임고문으로도 활동했다. 2003년 21세기를 향한 21명의 리더상상, 2008년 두브넥인도주의상 등을 비롯 다수의 인권, 발전 관련 상을 받았다.

https://en.wikipedia.org/wiki/Kavita_Ramdas

Kavita Ramdas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Open Society Foundations Women's Rights Program and is a globally recognized for gender equality and justice. She was CEO of the Global Fund for Women, and began to be noted as a major activist in feminist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She was also Executive Director of the program at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Stanford University and a senior adviser at the Ford Foundation. She received 21 leaders for the 21st Century Award in 2003, and a number of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wards including the Duveneck Humanitarian Award in 2008.

https://en.wikipedia.org/wiki/Kavita_Ramdas



레빈, 루스 IDInsight 대표 / 전 휴렛재단(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국제인구와개발 디렉터

Ruth Levine CEO and Partner, IDinsight / Former Program Director of Global Development and Population,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글로벌 자문과 데이터 분석의 연구기관인 IDInsight의 대표이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윌리엄과 플로라 휴렛 재단의 글로벌 개발과 인구 프로그램의 디렉터를 역임하며 국제개발, 글로벌 건강, 교육 등의 분야에서 개발 경제 전문가로 활동했다. 미국 국제개발처에서 정책, 계획, 학습 부서의 주요 책임자로 일했다.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글로벌 개발을 위한 센터에서도 연구와 프로그램 디자인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코넬대학교에서 생화학 전공 의학사를 받고,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경제인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Ruth Levine, Ph.D., is Chief Executive Officer of IDinsight, a global advisory, data analytics, and research organization. Between 2011-19, Dr. Levine, a development economist and exper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global health, and education,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s Global Development and Population program. Before joining the Hewlett Foundation, Dr. Levine was a deputy assistant administrator in the Bureau of Policy, Planning, and Learning at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that role, she led the development of the agency's evaluation policy. Previously, Dr. Levine led research and program design at 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the World Bank. Dr. Levine holds a BS in biochemistry from Cornell University and a Ph.D. in economic demography from Johns Hopkins University.



로프그렌, 한스 전 세계은행 발전경제전망그룹 선임경제학자 Hans Lofgren Former Senior Economist, World Bank

전 세계은행그룹 선임 경제학자다. 2004년부터 세계은행에서 일하면서 50개국에 적용할수 있는 국가 단위 중장기 정책 분석의 모델 MAMS를 개발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만든 CGE 모델 개발자로 널리 알려지게되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https://blogs.worldbank.org/team/hans-lofgren

Hans Lofgren is an independent consultant and was formerly a Senior Economist at the World Bank where he developed MAMS (Maquette for Millennium Development Goal Simulations), a model for medium- to long-run country-level policy analysis that has been applied to some 50 countries with a focus on fiscal policy, human development, and the labor market. Before joining the World Bank in 2004 he wa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At IFPRI, he worked closely with Sherman Robinson to develop the IFPRI standard CGE model that may be world's most widely used single-country CGE model. He was a Research Fellow of the GTAP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for the period 2014-2017 in recognition of his contributions to single-country CGE modeling. Hans holds a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말록-브라운, 마크 오픈소사이어티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총재, 전 유엔 사무부총장

Mark Malloch-Brown President, Open Society Foundations; Former Deputy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2009년부터 <오픈 소사이어티>의 글로벌 이사로 활동했다. 코피 아난 사무총장 시절 유엔에서 사무차장을 역임하며 인권, 정의, 발전을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유엔에서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세계은행에서 대외업무 책임을 맡았으며 영국 정부에서 각료를 역임하기도 했다. 폭력적 갈등을 예방하고 피하기 위한 비정부 조직 <위기 그룹>의 공동 발기인이기도 하다. 최근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의 개입을 지지하는 단체 <영국을 위한 최선>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다양한 민간 기업에서 일했고, 왕립 아프리카 사회, UN 재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 위원회 등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 현재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의 총재다.

Mark Malloch-Brown is president of the Open Society Foundations, the world's largest private funder of independent groups working for justice, democratic governance, and human rights. He has served on Open Society's global board since 2009. In his career of service, Malloch-Brown has worked to advance human rights, justice, and development in a variety of roles: serving as deputy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under Kofi Annan; head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directing external affairs at the World Bank; and working as a British government minister. He also co-founded Crisis Group, an NGO focused on preventing and averting violent conflict. More recently, he chaired Best for Britain, a group that makes the case for Britain's engagement with the European Union. He has worked with a range of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leading the boards of the Royal Africa Society, the UN Foundation, and the Business 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문현아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Hyuna, Moon Senior Research Fellow, CTMS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페미니즘 연구로 관심을 확대해 인권운동, 젠더 쟁점, 시민사회 운동을 경험하며 이론과 실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과 이주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덧붙여 건강, 먹거리 쟁점, 기후변화 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의미 있는 사회변화로 연결될 다학문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이다. 주요 저서로 『돌봄노동자는 누가돌봐주나』(공저)『페미니즘의 개념들』(공저), 『엄마도 때론 사표 내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산다는 것』등이 있다.

Hyun-a Moon receive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fter receiving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she expanded her interest to the field of feminism and NGO health movement. Based on her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Korean society/history and gender studies, she taught graduate courses on Korean Studies as a lectur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health, family, and division of labors. Related to the theme of care she wrote with her colleagues a book titled Who Will Take Care of the Care Workers? (2012, Hanul) (in Korean). Her book Mothers also Want to Hand in their Resignation (2012, Jisik Nomad) (in Korean) was written based on interviews with mother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바티아, 아니타 유엔여성기구 부총재

Anita Bhatia Deputy Executive Director for Resource Management, Sustainability and Partnerships, UN Women

세계은행 그룹 본부와 지부에서 중요한 직책과 리더십 분야를 담당했고, 특히 국제개발, 전략, 자원 동원, 전략적 파트너십과 조직변화 관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국가 단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규모 확대를 통한 중요한 성과 달성을 포함해 발전 의제를 선진화하며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도모하는 개발금융 담론에 크게 기여했다. 지식관리 글로벌 책임자, 비즈니스 성과 관리 책임자, 변화관리 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해 아프리카, 유럽, 중앙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도 활동했다.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하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법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9년부터 유엔 여성 부총재를 맡고 있다.

Anita Bhatia is Assistant Secretary-General and UN Women's Deputy Executive Director for Resource Management, UN System Coordination, Sustainability, and Partnerships. Ms. Anita Bhatia serves as the Assistant Secretary-General and UN Women's Deputy Executive Director since August 2019. Before joining UN Women, Ms. Bhatia has had a distinguished career at the World Bank Group, serving in various senior leadership and management positions, both at Headquarters and in the field. She brings extensive experience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ic partnerships, and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In various positions, she led teams to deliver significant resources for scaled-up impact, including at the country level, and to craft innovative partnerships to advance development agendas and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volving discourse on development finance. She has led diverse teams, including as Global Head of Knowledge Management, Head of Business Process Improvement,

and Head of Change Management. In addition to Latin America, she has worked in Africa, Europe, Central Asia, and South and East Asia. Ms. Bhatia holds a BA in History from Calcutta University, an MA in Political Science from Yale University, and a Juris Doctor in Law from Georgetown University.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Hye-Jin, Byeon**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1997년 <인도주의실천 의사협회>의 기획국장으로 보건의료운동 분야에서 활동하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사)인구복지보건협회 모자보건분과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먹거리 복지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성공회대학교 비정부기구학 석사를 받고 경상국립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과 건강, 돌봄과 건강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활동하고 있다.

In 1997, Hye-Jin Byeon served as the planning director of the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the field of the health and medical movement and as the planning director of the Korean Federation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 from 2001 to 2015. Since 2019, she has served as an advisor to the Health for Mother and Children Division of the Korean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and has also served as a food welfare subcommittee member of the Seoul Food Citizens' Committee since 2017. She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NGOs at Sungkonghoe University and a Ph.D candidate in sociology at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she is a standing research member of the Research Community 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and is working on environmental, health, care and health rights.



브라운스타인, 엘리사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lissa Braunstein Professor of Economics, Colorado State University

현재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 재생산, 젠더, 경제성장과 고용과 관련된 발전의 국제 거시경제 분야다. UNCTAD의 세계화와 발전전략 분과에서 선입 경제학자를 역임했고 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유엔 사회발전 연구소, 유엔 여성 등에서 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태평양국제관계분야 국제 및 공공문제 석사를 받고,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Elissa Braunstein is currently a professor of economics at Colorado Stat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Her main research areas are the international macroeconomic sectors of social reproduction, gender, and development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She has served as a pre-emptive economist in the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Strategy Division of UNCTAD and is a consultant in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 World Bank, the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United Nations Women. S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in the Pacific International Relations field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from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서주연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펠로우 Jooyeoun, Suh Faculty Fellow, American University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의 펠로우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육아와 노인 돌봄을 포함한 무급 가족 돌봄, 일하는 가족에 대한 시간 압박, 그리고 국민계정에 집안과 돌봄의 가치를 더하는 위성 계정 구축과 관련된 측정과 평가 문제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옥스퍼드 대학교 시간이용연구센터(CTUR), 미국 여성정책연구연구소, AARP에서 근무했다.

Jooyeon Suh is a faculty fellow at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in the U.S.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measurement and valuation issues regarding unpaid family care, including child care and elder care, time pressure for working families and building satellite accounts that add the value of housework to national accounting systems. She received her doctorate in economics fro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Prior to joining American University in 2021, she worked at the Oxford University Center for Time Use Research (CTUR), the American Women's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the AARP.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Sang-Hyun, Song President, Korean Committee for UNICEF / Former Presid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1962년 고등고시 행정과 및 사법과에 합격했다. 196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명예교수를 지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형사재판소 초대재판관과 재판소장을 역임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Sang-Hyun Song passed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 and the National Judicial Service Exam in 1962;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in 1963, and served as a professor and honorary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s Law School from 1972 to 2007. From 2003 to 2015, he served as the Appeals Judge and the Presiden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e has serv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Law Professors Association, chairman of the Korea Trade Commission, president of the Management Committee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chairma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Policy Advisory Committee. And He is currently the honorary president of the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UNICEF.



스티글리츠, 조지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E. Stiglitz University Professor of Economics, Columbia University; Laureate of the Nobel Prize in Economic Sciences (2001)

OECD 경제성과 및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고위전문가 그룹의 부의장이며 루즈벨트 인스티튜트의 수석 경제학자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한 뒤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지냈다. 2000년 컬럼비아 대학교에 싱크탱크 <정책 대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2011년 <타임>지 선정 세계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 100인에 뽑혔다. 주요 연구분야는 선구적인 연구 분야인 정보 비대칭성을 비롯해 소득 분배, 위기, 기업 거버넌스, 공공 정책, 거시경제학과 세계화 등이다. 최근 저서로 『사람, 권력, 이윤』, 『유럽 경제 규칙을 다시 쓰다』등이 있다.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다.

Joseph E. Stiglitz is an American economist and a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He is the co-chair of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at the OECD, and the Chief Economist of the Roosevelt Institute. A recipient of the Nobel Memorial Prize in Economic Sciences(2001), he is a former senior vice 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of the World Bank and a former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In 2000, Stiglitz founded the Initiative for Policy Dialogue, a think tank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based at Columbia University. In 2011, Stiglitzwas named by time as one of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 in the world. Known for his pioneering work on asymmetric information, Stiglitz's research focuses on income distribution, risk, corporate governance, public policy, macroeconomics, and globalization. He is the author, most recently, of People, Power, and Profits and Rewriting the Rules of the European Economy.



시코비츠, 마틴 아르헨티나 라 플라타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MartÍn Cicowiez Professor of Economics, National University of La Plata

현재 아르헨티나 라 플라타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CEDLAS 연구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CGE 모델의 응용과 정책이나 외부충격 평가를 위한 미시적 추정방식이다. UN-DESA, UNDP, FAO, 국제노동기구,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 라 플라타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Martín Cicowiez is Professor at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in Argentina and Researcher at the University's Center for Distributional, Labor and Social Studies (CEDLAS). He holds a PhD in Economics from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He specializes in the application of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and microsimulations to the assessment of policies and external shocks. 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and edited volumes and coauthored five books. He has worked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DESA, UNDP, FAO, ILO, the World Bank, IDB, AfDB, UN-ECLAC, UN-ESCWA, ALADI, and PEP.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Sung-Sik, Shin Journalist, JoongAng Daily

연세대학교에서 보건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국노년학회 부회장, 국회 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회 위원, <중앙일보> 정책디렉터를 거쳐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한국연금학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현재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이자 논설위원이다.

Sung-Sik Shin received a master's and doctoral degree of health sciences in Yonsei University.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Children's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Countermeasures. He was vice chairman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a member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Suicide Prevention Forum, and a policy director of the JoongAng Daily. And He is currently a journalist and editorial member specializing in welfare at the JoongAng Daily.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 / 경제연구 및 지역협력국장
Yasuyuki Sawada Chief Economist and Director General, Economic Research and Regional Cooperation Department, Asian Development Bank

현재 아시아 개발은행 수석경제학자이며 경제연구·지역협력국장이다. 일본 도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한국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호주 국립대학교 호주-일본 연구센터 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개발 경제, 국제 경제, 국제 금융, 아시아 위기와 재난 등이다. 국제개발정책(식량연구센터)에서 석사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https://sites.google.com/site/yasuyukisawadapage/home

Yasuyuki Sawada is currently a senior economist at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director of economic research and regional cooperation. He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He wa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a researcher at the Australian-Japan Research Center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Australia, and a visiting researcher at the Asian Development Bank.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development economy, international economy, international finance, the Asian crisis and disaster. He received a master's degree from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Food Research Center) and a doctorate in economics from Stanford University.



엘슨, 다이앤 영국 에섹스대학교 명예교수 / 전 여성예산단체 대표 **Diane Elson** Emeritus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Essex / Former Chair, Women's Budget Group

현재 영국 에섹스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전 영국 여성예산단체 대표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젠더 평등과 경제정책이며 글래스고 칼레도니안 대학교 WiSE 연구센터 객원교수이며 럿거스 대학교 여성 글로벌 리더십 센터의 연구교수다. 개발정책을 위한 UN 위원회위원이며 유엔여성 자문이다. 2016년 경제사상의 개척에 기여한 공로로 레온티에프 상을수상했다.

Diane Elson, from the United Kingdom, is Emeritu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t Essex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at the WiSE Research Centre, Glasgow Caledonian University and Research Associate at the Center for Women's Global Leadership, Rutgers University. She is a member of the UN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and is a consultant to UN Women. In 2016, Dr. Elson was awarded the Leontief Prize for Advancing the Frontiers of Economic Thought. She has served as chair of the UK Women's Budget Group and as Vice-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She is the author of many publications and articles o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policy.



오치아이, 에미코 일본 교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아시아공간연구센터 센터장 Emiko Ochiai Professor of Sociology and Director of Asian Research Center for Intimate & Public Spheres, Kyoto University

현재 일본 교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동 대학교 아시아공간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역사적·비교적 관점에서 본 가족과 젠더 연구다. 최근에는 사생활의 영역과 공적 제도에서 동시적인 전환을 포착하기 위해 복지국가와 이주를 파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주요 공저로 Asian Families and Intimacies, 4 vols. (2021),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2014), Asian Women and Intimate Work (2013). and The Stem Family in Eurasian Perspective: Revisiting House Societies, 17th-20th Centuries (2009) 등이 있다.

Emiko Ochiai is a Japanese sociologist and is Professor of Sociology at Kyoto University, Japan. She is also the Director of Asian Research Center for the Intimate and Public Spheres (ARCIP) at Graduate School of Letters, Kyoto University and the Director of Kyoto University Asian Studies Unit (KUASU). Her areas of interest are family and gender studies from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Her recent projects cover welfare state and migration to capture the simultaneous transformations in private lives and public institutions. Her English publications include Asian Families and Intimacies, 4 vols. (co-editorship with Patricia Uberoi, Sage, 2021),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co-editorship, Brill, 2014), Asian Women and Intimate Work (co-editorship, Brill, 2013). and The Stem Family in Eurasian Perspective: Revisiting House Societies, 17th-20th Centuries (co-editorship, Peter Lang, 2009). She is the series editor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and Global Perspectives from Brill.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ayoung, Yoon Professor of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여성학과에서 석사를 마쳤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앰허스트)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노동 경제와 가족경제를 전공하였고 돌봄노동과 시간 사용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한국의 시간사용조사를 이용해 부부의 성역할규범과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연구를 했고, 미국 시간사용조사를 이용하여 아동돌봄시간을 측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주제에 관해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그 밖의 논문으로 "비시장노동과 노인 여성의 생활수준", "경제 발전과 무급 돌봄 노동시간"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했고 현재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다.

Ja-young Yoon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master's degree in economics and a master's degree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he majored in the labor economy and the family economy from a feminist perspective a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in the United States and wrote a doctoral dissertation on caring labor and time use. We used the time-use survey in Korea to study the gender role norms and household labor sharing of couples. We also used the US time-use survey to measure child care time and write several papers on the subject of calculating economic value. Other papers include "Non-market Labor and the Living Standards of Elderly Women"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Unpaid Care Working Hours". She is an associate researcher at the Korea Labor Institute and is currently a professor of economics at Chungnam University.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센터장 **Ki-Soo, Eun** Professor and Director of CTMS, G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인구학 석사 및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사회사학회 회장, 한국인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부회장,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센터장을 맡고있다.

Ki-Soo Eun is a Professor of Sociology and Demography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low fertility and aging, family history, family values, transnational migration, care and care work, time use study and quantitative method. Prof. Eun has led the Comparative Asian Family Survey (CAFS) project together with Prof. Emiko Ochiai of Kyoto University in Japan, which conducted family surveys in Thailand, Vietnam, Malaysia, India, Qatar and Turkey. Since 2017, he has been engaged in an international project on the care economy (CWE-GAM project), representing the Korean team. He is in charge of the KOICA Gender and Development Program at GSIS as the Program Manager. Prof. Eun is also an expert on time use research with publications and articles on work-life balance, time poverty, study time, and sleep. He leads comparative studies on time use across countries. Prof. Eun currently serves as Vic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me Use Research and is also the

founder and current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ime Studies. He is President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and the Korean Social History Association, as well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Family Studies Association. He also serves as Vice Director at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Prof. Eun is a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PCASPP) in Korea.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

Kyoung Min, Yi Manager, Committee for Fair Labor Society,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2014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입사하여 보건의료, 보육노인 등 돌봄정책, 보건복지예결산 분석 등의 일을 담당했다. 현재는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이고, 사회 복지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 노동사회위원회 일을 맡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회 복지학을 전공하고, 노인복지정책으로 논문을 썼으며, 현재 사회복지 박사과정 중에 있다. 참여연대 입사 전에는 복지현장을 경험하고자 노원노인복지관에서 재가복지 분야의 일을 했다.

Since 2014 she has been working as a coordinator at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 NGO based in South Korea. At the department on social welfare policy, she has proactively been monitoring and advocating social welfare policies including care service for children and seniors, health care system and analysis on social expenditure. Currently she is serving as a team manager at the Socio-economic department II, overarching three different departments; Social Welfare Committee, Committee for Fair Labor Society and Center for Tax Reforms.

She studied social welfare at the Seoul Women's University and graduated with her master's degree in social welfare policy for seniors at the same university. She is now pursuing Ph.D. in social welfare. Before joining PSPD, she experienced working as a social worker for in-home service at the community senior welfare center in Seoul.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실장

Yunkyung, Lee Director, Department of Population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화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자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노인복지, 노인돌봄, 고령화 정책 분야 등이다. 주요 저서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지역사회 장기요양제도 개편 계속 거주를 위한 방안』등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실장이다.

Yun-kyung Lee is conducting research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that studies Korea's health and welfare policies. She is also an advisor to the aging policy of th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Committee, and a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y advisory group for the elderly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jor research areas include welfare for the elderly, care for the elderly, and aging policy. Her major books includ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 Suggestion of long-term care system reform in view of Aging in place, KIHASA. S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Population Policy Laboratory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이주현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Joohyun, Lee Program Manager, CTMS, SNU GSIS

현재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연구원이자 프로젝트 매니저다. 센터에서 본 회의 진행과 추진을 총괄했으며, 돌봄과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도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돌봄과 관련해 돌봄이 대중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익숙한 주제가 될 수 있도록 미술관의 특별 프로그램이나 NGO 단체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Joo-hyun Lee is a Research Associate at the Center fo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Inclusion (CTM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understanding and reframing care work in connection with building an inclusive society; care burden for the increasi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significance of self-care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especially with regards to the opportunities and/or challenges for women; and the mental wellness of people who engage in care work. Lee received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B.A.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University of Chicago.



이현림 민주노총 공공운수 보육지부 초대지부장 **Hyun Lim, Lee** First Chairperson, National Childcare Workers' Union

2008년부터 보육교사로서 일을 시작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원 시립호반어린이집 보육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어린이집 비리고발 및 아동학대, 부모갑질 및 현장 노동법 위반 상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2018년 민주노총 공공운수 보육지부 초대지부장과 보건복지부 보육노조 대표를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육현장 관련 국회 토론회나 전문가 토론회에 참여하여 보육문제에 관한 사회적 의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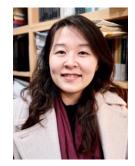
Hyun Lim Lee started working as a nursery teacher in 2008. Since 2011, she has been working as a nursery worker in Suwon City Lakeside Nursery School. Since 2012, she has also been involved in childcare and child abuse, parental abuse, and on-site labor law violations. She served as the first branch manager of the KCTU's Public Transport Childcare Branch in 2018 and as a representative of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s Childcare Union. Since 2017, She has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debate and expert debate on childcare sites and contributed to the social agenda on childcare issues.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iyeun, Chang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장지연은 미국 메디슨 소재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99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득불평등, 복지국가, 일·생활 균형, 여성노동시장 등이다. 현재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함께 펴낸 저서와 연구보고서로 『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2007), 『노동시장구조와 사회적 보호체계의 정합성』 (2011), 『디지털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2017) 등이 있다.

Jiyeun Chang, Ph. D.,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Labor Institute (KLI). Dr. Chang earned her Ph. D.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and joined the KLI in 1999.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female labor market, work-life balance, and income inequality. She is currently working on platform workers and social protections in Korea.



전지원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Jiweon, Jun Senior Research Fellow, CTMS

현재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이다.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던 중 유학을 떠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노년의 시간 사용과 웰빙을 주제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옥스퍼드대학교 (현 UCL) 생활시간센터에서 근무하며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들여다보았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국제정책센터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2018 한국의 돌봄조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등 한국사회의 유, 무급 돌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에 참여해 왔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와 한국의 아동 돌봄>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각 가정의 돌봄 부담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Jiweon Jun, D.Phil.,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Center for Trans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Inclusion (CTM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iweon has been collecting and analysing empirical data on care work including <2018 Care Work in Korea> survey and <2020, 2021 Covid-19 and Childcare> survey, focusing on the car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and how care responsibilities are shared.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are work; the structure of care work and inequalities among care workers; well-being in late life; work-life balance;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changing patterns of time use across the life course; and multidimensional index. She was a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with the Centre for Global Social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and with the Centre for Time Use Research (CTUR), University of Oxford. She received her B.A. in Anthrop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er M.Sc. and D.Phil. in Sociology from the University of Oxford.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Ji Hyeon, Jeon Secretary-General, National Union of Long-Term Care Workers

2012년 성남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으로서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상담, 민원해결을 위해 일을 하며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사회적 인식도 문제지만 자존감, 자긍심도 낮아 부당해도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이자 관리자로 근무하며 장기요양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직접 확인하면서 법과 제도의 변화가 절실하며,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바꿔보겠다는 마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들의 돌봄노동은 고귀하며, 법과 제도가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현재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Ji Hyeon Jeon, as the director general of the Seongnam Caregivers Association in 2012, started working as a caregivers' grievance counseling and civil affairs, and felt that the low social awareness of caregivers is a problem, but the self-esteem and pride are low, so that they need to change their appearance that they cannot speak even if they are unfair. Since then, she has worked as a social worker and manager at the home visiting nursing center, and has been involved in creating a labor union with the intention of changing laws and systems by directly confirming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long-term nursing system. Since care workers' care work is noble, in order to make the law and system happy for the working people, s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Nursing Services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 **Seulah, Jeong** Manager, Women's Labor Team, Womenlink

2009년 2월부터 <한국여성민우회> 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2020년부터 여성노동팀 팀장을 맡아,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연구사업을 총괄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위기 속 여성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89명의 심층인터뷰, 언론보도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터에서의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고용평등상담, 성평등한 조직문화만들기 캠페인 등 여성노동 이슈 대응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Seulah Jeong has been working as a full-time activist for the Womenlink since February 2009. Since 2020, she has been the head of the women's labor team and has overseen research projects to ensure unstable working condition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women working as freelancers, special employment workers, and platform workers. In recent years, 89 in-depth interviews and media coverage monitoring projects were conducted to reveal the reality of women in the care crisis in the COVID-19 situation. And she continues to respond to women's labor issues such as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that women workers are experiencing, employment equality counseling on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gender equality organizational culture campaign.



정영애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 **Young-Ai, Chung**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와 동대학원 여성학과에서 여성학 및 가족을 전공으로 국내 첫 여성학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대학원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여성재단 이사, 한국여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역량을 펼쳤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여성과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와 행정을 병행하고 있다.

Young-Ae Chung is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f the Republic of Korea. She majored in women's studies and family at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t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he earned the first doctorate in women's studies literature in Korea. She served as the graduate director and vice president of the Seoul Cyber University, and served as a director of the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d chairman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She has been a civilian membe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nd has been conducting research and administration focusing on women and the elderly.



조기현 전 청년불평등완화 대화기구 공동위원장 /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Gi-Hyun, Jo Former Co-Chairman, Youth Inequality Council / Author of The Narrative of a Young Carer: Becoming a Father of My Father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를 썼고, 칼럼 [조기현의 '몫']을 연재 중이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영 케어러'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생애 전망과 생산/재생산의 재편 속에서 돌봄의 가치와 위치를 탐색하는 중이다. 청년불평등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공동위원장을 지냈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비상임이사, 보건복지부 청년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자문위원이다.

He wrote the book The Narrative of a Young Carer: Becoming a Father of My Father and is serializing the column "Jo Ki-hyun's share". He is continuing various discussions on Young Carer, which refers to adolescents who care for sick families, and is exploring the value and location of care in the reorganization of life prospects and production/reproduction. He has been co-chairman of the dialogue organization of the whole society to alleviate youth inequality. And He is a non-executive director of the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a member of the Youth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an advisory member of the CTMS.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Seung-Eun, Cha Professor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Suwon

현재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다. 가족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중년남녀의 가족역할과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 인구 및고령사회연구소의 전임연구원, 미국 매릴랜드대학교 가족학과 연구원을 역임했고, 관심연구 분야는 생활시간, 시간정책, 사회복지정책, 다문화사회와 인구변동, 젠더 이슈 등이다.

Seung-eun Cha received her Ph.D. i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doctoral dissertation dealt with examining the impact of the family role, as spouse and parent, on individual health experience, based on gender difference. After receiving her Ph.D. her research interests expanded to midlife development, life transition issues, and retirement issues. Currently Cha is working at the University of Suwon as an associate professor, using time use survey data to focus on the field of leisure, sleep, and time pressure. Cha has been involved in a research project that deals with sleep and health issues ("Sleeplessness in Korea"). Cha has published several papers dealing with time related stress, time pressure and time poverty. Her research paper 'Social acceleration vs. slowdown' in Development and Society (2017) tried to understand the time pressure trend during the past decade in Korean society and how time pressure experience diverge by social groups.



최정우 포스코 회장 Jeongwoo, Choi CEO, POSCO

현재 포스코 회장이다. 39년 경력의 철강업 전문가로 포스코건설 경영전략실장,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획재무본부장,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 포스코케미칼 사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그룹 사업재편, 신사업 발굴 및 포트폴리오 강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철강을 뛰어넘어 수소사업, 이차전지 소재사업 등 그린과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저탄소, 친환경 기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주도하며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018년 회장 취임 후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선포하며, 강건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로로 2020년에는 경영학자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사회문제 중 저출산 이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업차원의 출산친화 Role Model 제시를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Jeong-woo Choi is currently POSCO CEO. As a steel industry expert with 39 years of experience, he has been working as a management strategy manager of POSCO E & C, planning and finance director of POSCO Inter National, director of POSCO's value management center, and president of POSCO Chemical. In particular, he has laid the foundations for becoming a 100-year company by leading the acquisition of low-carbon, eco-friendly future growth engines, focusing on green and mobility such as hydrogen business and secondary battery material busines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chairman in 2018, he declared "corporate citizens who develop together" as a new management ideology and emphasized the nee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 robust industrial ecosystem and solving social problems. For this achievement, he won the Management of the Year Award by business scholars in 2020. Especially, among social problems, he is very interested in low fertility issues and are leading the way for presenting a company-friendly Role Model.



킹, 엘리자베스 M.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CWE-GAM 공동 연구책임자 Elizabeth M. King Nonresident Senior Fellow, Brookings Institution / Co-Principal Investigator, CWE-GAM Project

필리핀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하고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메리칸 대학 기반의 CWE-GAM 프로젝트 공동 연구책임자다. 현재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의 비상임 선임 연구원이자 조지타운 대학교 겸임교수이며 여러 비정부기구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 고위 간부이자 대변인을 역임했고 주로 교육과 인간 개발과 관련된 글로벌 정책과 전략 이슈의 전문 책임자로 활동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인적 자본과 빈곤 그리고 경제발전, 돌봄과 시간사용 배분, 개발부문에서의 젠더 이슈 등이다.

Elizabeth M. King is Co-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Care Work and the Economy Project based in American University. She is currently a Nonresident Senior Fellow of the Brookings Institution, Adjunct Professor of Georgetown University, Managing Editor of the Journal of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a board member of several NGOs. Dr. King was formerly the World Bank's senior manager, spokesperson, and professional head for global policy and strategic issues related to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She has also published on topics such as the linkages between human capital, pov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care and time-use allocation; and gender issues in development. She has a Ph.D. in Economics from Yale University and a Master's and B.A. from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펭, 이토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사회학·공공정책학과 교수 / 글로벌 사회정책센터 센터장Ito PengProfessor of Sociology and Public Policy and Director, Centre for Global Social Policy, University of Toronto

현재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사회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이자 캐나다 글로벌 사회정책 연구 의장을 맡고 있으며 토론토 대학교 국제사회정책연구소 소장직도 맡고 있다. 동아시아의 사회 정책 및 돌봄의 정치경제학, 가족 및 인구문제에 대해 활발히 연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젠더, 이주 그리고 돌봄노동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돌봄노동에 대해 비교분석한 저서 『젠더, 이주, 그리고 돌봄노동』를 펴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돌봄노동 '프로젝트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시아 퍼시픽 재단의 우수 연구원으로 UNRISD와 유엔 여성에서 활동하고 있다. https://sociology.utoronto.ca/people/faculty-and-staff/ito-peng/ 참고.

Professor Ito Peng is a Canada Research Chair in Global Social Policy at the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Toronto. She is an expert in global social policy, specializing in gender, migration, and care policies. She has written extensively on social policie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care, and the global migration of careworkers, focusing on particular Asia Pacific region. Her teaching and research focus on comparative social policy, and family, gender, care, and migration policies. She has just completed an international partnership research project entitled Gender, Migration, and the Work of Care (http://cgsp.ca/), and is now engaged in a new project called Care Economies in Context: Towards Sustain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폴브레, 낸시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 애머스트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전 세계여성경제학회 회장

Nancy Folbre Professor Emerita of Economic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Former Presid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현재 미국 메사추세츠대학교 에머스트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같은 학교의 정치경제 연구인스티튜트의 젠더와 돌봄노동 프로그램 소장이며 바드 컬리지의 레비 경제학인스티튜트의 선임 연구원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무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특별히강조하는 맥락에서 정치경제와 페미니즘 이론 접점의 모색이다. 주요 저서는 『가부장제의흥망성쇠』(2021), 『사랑과 돈을 위해: 미국의 돌봄노동』(2012), 『욕심, 탐욕, 젠더: 경제사상의 역사』(2009), 『아동의 가치화: 가족의 경제학을 다시 생각한다』(2008), 『보이지않는 가슴』(2001) 등이 있다. 일반 대중들을 위한 글쓰기도 활발히 해 <뉴욕 타임즈>, <더 네이션>,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등에 기고하고 있다. 개인 웹사이트와 블로그참고. Care Talk: http://blogs.umass.edu/folbre/

Nancy Folbre is Professor Emerita of Economics and Director of the Program on Gender and Care Work at the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and a Senior Fellow of the Levy Economics Institute at Bard College in the United States. Her research explores the interface between political economy and feminist theory,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value of unpaid care work. In addition to numerous article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she is the author of The Rise and Decline of Patriarchal Systems (Verso, 2021), the editor of For Love and Money: Care Work in the U.S. (Russell Sage, 2012), and the author of Greed, Lust, and Gender: A History of Economic Ideas (Oxford, 2009), Valuing Children: Rethinking the Economics of the Family (Harvard, 2008), and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Press, 2001). She has also written widely for a popular audience, including contributions to the New York Times Economix blog, The Nation, and the American Prospect. You can learn more about her at her website and blog, Care Talk: http://blogs.umass.edu/folbre/



플로로, 마리아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CWE-GAM 공동 연구책임자 Maria S. Floro Professor of Economics, American University / Co-Principal Investigator, CWE-GAM Project

현재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CWE-GAM 공동 연구 책임자다. 주요 연구 분야는 취약성, 비공식 고용, 도시의 식량안전, 시간사용과 웰빙, 금융위기, 도시 빈곤, 가구 저축, 신용과 자산 소유 등이다. 태국, 필리핀,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 도시빈민 공동체의 취약성, 젠더, 비공식 고용에 관한 현장 연구 책임자다. 최근 중국, 몽골, 태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의 경제사회적 비용 프로젝트의 기술자문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비공식 신용 시장과 신제도주의 경제학』, 『세계경제에서 여성의 노동』, 『젠더, 발전, 세계화: 모든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경제학』 (공저, 출간 예정) 등이 있다.

Maria S. Floro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American University in Washington DC and co-director of the Graduate Program on Gender Analysis in Economics (PGAE). Her publications include books on Informal Credit Markets and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Women's Work in the World Economy, and Gender,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Economics as if All People Mattered (co-authored; forthcoming)as well as monographs and journal articles on vulnerability, informal

employment, urban food security, time use and well-being, financial crises, urban poverty, households savings, credit, and asset ownership. She has collaborated with researchers, women's group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ailand, the Philippines, Ecuador, and Bolivia in conducting fieldwork on vulnerability, gender, and informal employment in urban poor communities. She is currently working on analysis of time use survey data of China, Mongolia, and Thailand and serves as technical adviser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oject.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 Young Sug, Heo Representativ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1990년대부터 여성인권운동에 참여했다. 2007년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합류해 이주여성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익신장,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생활 지원,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지구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코로나 19 펜더믹 상황에서 1,700여 이주민 가구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재난지원에서 배제된 이주민 지원을 위해 힘썼다. 현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다.

Since the 1990s, Young Sug Heo has participated in the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In 2007, she joined th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and is active in the field of migrant women. It continues to promote the equality and peaceful global community by creating a community that lives together through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migrant women, support for Korean life for migrant women from a gender-recognitive perspective, and solidarity across borders. In 2020,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he worked to support migrants excluded from disaster support, including supporting the emergency living costs of 1,700 migrant households. She is currently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of Korea.

- 164 -